

7 2023 VOL. 325

haninnewsinni@gmail.com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신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KB 부코핀은행 새로운 시작! STM의 찾아가는 금융컨설팅!

*STM(SME Total business Manager) : KB국민은행 금융컨설팅 전문가 (한국인)

5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코핀은행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되어 KB 부코핀은행으로 출발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본국의 기업금융 전문가 15명을 KB 부코핀은행 현지에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内
한국계 기업 및 교민분들을 위해 현지 영업점과 협업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기예금 특별 금리 제공
- 기업대출 상담
- 환율 우대 제공
- 한국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금융컨설팅)

종류	기간	금액	SPECIAL 금리
정기예금	6개월	1억 Rp 이상	
	1년		
기업대출	1년 이상	기업평가를 통한 금액 및 금리 결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역	담당자	연락처
본점(코리아데스크)	본부장 정철민	0821 1463 0602
본점 영업부	Ms.Siska Andini	0819 0505 4922
서부자바(자카르타)	팀장 박현석	+82 10 6778 1796
중부자바(스마랑)	팀장 한찬호	+82 10 9474 9985
동부자바(수라바야)	팀장 김기호	+82 10 2017 8610

KB 부코핀은행은 2022.6월 Global 신용평가회사 Fitch 및 인도네시아 신용평가 회사 Pefindo로 부터
인도네시아 기준 최우량 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Hyundai IONIQ 5

짧아진 기다림, 또 다른 감동을 충전할 시간

전기차 부가세(PPN)

~~11%~~ 1%



2022 WORLD CAR AWARDS
WORLD CAR OF THE YEAR

유지비 걱정 NO

- 내연기관차 대비 최대 4.9배 비용절감 효과 (복합연비 기준)
- 16.8 kWh/100 km (1 kWh/5.9 km)* 충전시 Rp 28,543**
- 10 liter/100 km (1 liter/10 km)* 주유시 Rp 139,900**

배터리 걱정 NO

- 배터리 무상 보증 8년 / 16만 km

충전 걱정 NO

- 전국 현대차 충전소 181 개소
(Plaza Indonesia 신규 초고속 충전소 포함)
- 공공 전기차 충전소 (SPKLU) 616 개소***
- 찾아가는 충전서비스*** (긴급 무상)

주행거리 걱정 NO

-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 481 km*

구분 IONIQ 5 내연기관차

부가가치세 (PPN)	1%	11%
사치세 (PPnBM)	0%	15%/20%
차량취득세 (BBNKB***)	0%	12,5%



*Prime Long Range 19인치 휠 모델 및 내연기관차 평균연비 10 km/l 기준

**기정용 AC 충전기 (Rp 1,699/kWh) 및 Pertamax RON 92 기준 (Rp 13,990)

***23년 5월 기준이며, 지역별로 시설 사양 또는 서비스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금융 상담 : +62 813-1696-2061 월츠앱문의 (Sunindo KB Finance),

+62 21-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신한은행)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A LUXURIOUS HOME IN SOUTH JAKARTA

Located in the heart of south Jakarta with unrivaled views of this prestigious district, the residences are perfect for both business and leisure with its elegant one to three bedroom apartments and four bedroom penthouses, delivering an unprecedented lifestyle choice in the capital for short-term and extended stays.

The property is connected to the InterContinental Hotel Jakarta Pondok Indah, premium shopping malls, office towers and is strategically located within minutes to excellent healthcare facilities, international schools and a world-class golf course.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and to schedule a tour
T. 021 3950 7355 E. sales.icjakarta@ihg.com

2020년 9월에 개장한 **InterContinental Residences Jakarta Pondok Indah**

Indah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럭셔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의 레지던스입니다.(IHG®).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Hirsch Bedner Associates Singapore가 설계한 InterContinental Residences Jakarta Pondok Indah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설, 국제 학교 및 전설적인 Pondok Indah 골프 코스와 한개에서 세개의 침실이 있는 레지던스와 침실 네개의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Jakarta Pondok Indah의 프리미엄 편의 시설 및 서비스의 풀 패키지로는 최첨단 24시간 피트니스 센터와 야외 수영장, 고급 부티크를 자랑하는 Pondok Indah Malls 1, 2, 3 이용이 가능하며 레지던스는 200개의 다이닝 옵션. 엘리트 회의 공간과 2개의 세계적 수준의 레스토랑(수상 경력에 빛나는 Sugar & Spice 와 Shio, 노련한 일식 셰프 호다카 히데마로의 고급 일식 레스토랑)을 갖춘 InterContinental Jakarta Pondok Indah Hotel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소 체류 기간은 1주일입니다



InterContinental Residences 예약은:



T. +6221 3950 7355

E. salescoordinator.ICJakarta@IHG.com

InterContinental Residences Jakarta Pondok Indah

Jl. Metro Pondok Indah Kav. IV TA, Jakarta 12310, Indonesia

월간 한인뉴스 7 2023



표지사진: 정호종 (JIKS 초등교사)
2023 INDONESIA DAY (2023. 6. 16)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흥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포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8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이상덕 대사 특별 인터뷰

11

[김재훈의 ‘세무 TALK’]
세무당국에서 납세자의 금융
정보 취득 관련 규정 &
자카르타 재산세(PBB) 감면 규정

16

‘재외 동포청’ 출범

1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2

나의 암바라와 〈이태복〉

24

‘2023 JIKS INDONESIA DAY’



contents

2023. 7. 통권 325호

26 [여기가 맛집!] SAIGONG DELIGHT <황지영>	45 [문학탐방1] 이달의 시 산새 친구들과 <김우재>	54 안부(2) <김아람>
29 김종성 변호사,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출마	46 [반려동물 랜선집사] 백호의 4살 생일파티	57 적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0 [떠나야 보이는 것들] 언어와 분류에 갇혀 살지 않기를 <손예리>	48 바틱박물관을 다녀와서 <강순원>	58 도심 정원 속에 숨겨진 박물관 <정윤희>
32 [서상영의 한방칼럼1] 목, 어깨 통증	51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	64 내 아이의 글쓰기3 <조은아>
36 [행복에세이] 비등점 <김준규>	52 한인니문화연구원,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과 협약체결	6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3)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1) <이승민>
38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와서 <무애 이영일>	53 JIKS 소식	68 생활정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이상덕 대사 특별 인터뷰



“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서적 유사성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한다

”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발간하는 도서 출판과 관련, 한인뉴스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이상덕 대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편집자 주

1.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로서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은 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1월 4일에 인도네시아 대사로 부임하였는데, 때마침 금년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해서 저로서는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국은 수교 이전부터 교류하고 협력해 왔으며, 수교 이후 지난 50년간 양국간 협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빠짐없이 골고루 발전해왔습니다.

한인사회는 양국간 수교보다 훨씬 앞선 1920년 장윤원 선생이 바타비아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태동한 이래, 인도네시아의 근현대사와 함께 성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관계가 향후 50년, 100년을 향하여 한 차원 높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양국 수교 50주년과 관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의미 및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대사로서의 역점 사안은 / 양국간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무한한 협력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우리와의 협력의 잠재력을 가진 분야가 많은 국가입니다.

이미 작년 한해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님 방문 및 올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한-인니 관계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수교 50주년,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등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대사로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미중갈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봉제 등 제조업 분야의 협력에서 벗어나서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및 신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양국 KF-21/IF-X 공동개발로 대표되는 양국간 방산 협력도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협력을 심화시켜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원자재 보유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투자 대상국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역시 디지털 전환, 에너지 변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IT 산업,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 원인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류 문화의 폭발적 인기가 양국 관계 발전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화의 일방적 흐름은 어느 시점에 가서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존중하고 전파하는 쌍방향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방향으로 양국관계가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동포사회와 진출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3. 지난 1월부터 한-인니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앞으로의 양국 경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먼저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시작하는 1월에 ‘한-인니 CEPA’ 가 발효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인니 CEPA는 새로운 50주년을 축복하는 상징일 뿐 아니라, 양국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소중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니 CEPA는 앞으로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 아니라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양국간 교역규모가 2020년 139억불에서 2021년 192억 불, 2022년 260억불로 증가해오고 있습니다만, 한-인니 CEPA는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정밀화학제품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철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년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액이 300억불을 돌파하고, 5년내 500억불 수준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인니와의 경제협력을 얘기할 때 공급망 협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중 간의 글로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적 환경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재편은 전 세계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요소수 대란을 겪었던 경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1년 12월 우리는 인니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시 연간 국내수요의 1/3에 해당하는 연간 12만톤을 인니로부터 3년간 공급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요소수 대란 극복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미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및 2차전지 분야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핵심적인 협력 상대국입니다. 동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작년 3월 인니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전기차 아이오닉5를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LG엔솔은 합작으로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하여 내년부터 생산할 계획에 있으며, 현대차는 합작공장으로부터 배터리셀을 공급받으면 대형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셀부터 배터리 시스템, 전기차 생산까지 전기차 생태계 전 단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LG 엔솔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기업 컨소시엄이 니켈원광부터 배터리 중간재, 배터리셀 생산까지를 포함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투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 프로젝트까지 실현되는 날이 오면 우리는 인도네시아 내 니켈 원광부터 배터리셀, 전기차 생산까지 배터리-전기차 생태계 전 단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e-모빌리티, 원전, 농기계, 통신, 의료, 제약, 금융, 법률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한 분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각 분야에 대해 모두 상세히 기술할 순 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인니 경제협력은 양국 관계의 틀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인니 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분야에 걸치는 30여 개 우리 금융 기업들의 진출, 국내 대형로펌들의 진출 등은 아세안의 중심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더 넓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시선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내 세일즈 외교의 ‘영업사원 1호’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이곳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및 동포사회와 항상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미-중간 전략경쟁 심화, 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공급망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원 수급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급망 관점에서 양국이 어떤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인도네시아는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구리(9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서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공급망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이러한 자원과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지난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경제협력위원회」, 「고위급 투자대화」 등을 개최하며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4개국이 참여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공급망)」 협정이 타결되

며,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적 기반 외에도 인도네시아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EV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이 한-인니 경제 협력 특히 공급망 협력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잘 결합된다면, 「공급망 플러스」 협력으로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오닉 EV를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LG엔솔과 현대차그룹 합작공장에서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EV용 배터리도 생산될 것입니다. LG엔솔이 컨소시엄의 니켈 원광부터 배터리셀에 이르는 그랜드 패키지 투자에 이어 현재 SK, 포스코, LX인터네셔널 등 여러 기업들이 EV 분야에서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EV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양국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와 대사관은 이 분야에서 인니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인니에 진출한 대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이나, 현지 시장 정보 습득, 파트너 물색 등에 대해 자체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동포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중소기업과 동포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게 되었지만, 우리 중소기업 및 동포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대사관은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동포기업을 함께 지원하며, 특히 중소기업 및 동포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사관은 유관 공공 기관, 진출기업, 동포기업 및 한인회로 구성된 팀 코리아(Team Korea)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형식의 국세·관세·노무 설명회를 통해 지방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과 동포기업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동포사회는 약 2만 5천만명으로서, 인도네시아 내 최대 규모의 동포사회이기도 하지만, 견고하고 협력이 잘 되는 모범적인 동포사회입니다. 우리 대사관과 한인사회가 가진 네트워크와 역량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중소기업과 동포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동포기업인들은 대사관에 직접 또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공유해주시면 대사관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요?

우리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힘차게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보다 통합적·체계적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전담 기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에게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 체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사관 역시 우리 재인도네시아 동포 여러분들께 보다 양질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나갈 것입니다. 영사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의 편의가 가일층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이점을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실감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재외동포청은 본청을 인천에 두고,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

- 통합민원실에서는 아포스티유, 해외이주, 국적, 병무, 가족관계, 재외국민등록 등 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처리 중 / 향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 사증 및 세금 등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 예정

- 24시간 재외동포 민원업무 상담이 가능한 동포콜센터 운영 중
- 재외동포의 정부 및 민간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 추진 중 →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여권과 재외국민등록부 등 해외체류정보를 활용, 온라인 본인확인이 가능해질 예정



Close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

7. 재임 기간 중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우리 인도네시아 동포사회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하며, 끈기있게 발전해왔습니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동포사회 원로분들, 그리고 진출 기업인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전세계 동포사회 중 가장 훌륭한 동포사회가 이미 구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우리 동포사회와 기업들은 다른 동포사회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오히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꿨으며, 이 계기에 한인회 산하에 있던 상공분과위원회를 한인상공회의소(KOCHAM)로 확대·개편하며 우리 기업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동포사회와 기업들이 “고통로용(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합심하여 마스크와 의료물품,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장 필요했던 산소발생기와 호흡기를 지원해 현지에서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양국 관계 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저력있는 동포사회와 함께 우리 대사관은 동포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사서비스를 지속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재외동포청의 출범에 맞추어 우리 국격에 걸맞는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재외국민보호에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지난해 발간한 ‘의료 가이드북’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최신 내용을 e-book으로 제공하고, 올 해 7월에는 ‘해외 생활 안전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빈번한 지진, 홍수 및 화산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공지사항 전파체계 및 긴급 지원 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테러 등 강력 사건에 대비하여 주재국 관계당국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는 재임기간 중 한인회, 코참 및 한글학교 등 동포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 동포사회의 단합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동포사회가 인도네시아 주류 사회와 화합하는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고자 하니,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대사관이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대사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세무당국에서 납세자의 금융 정보 취득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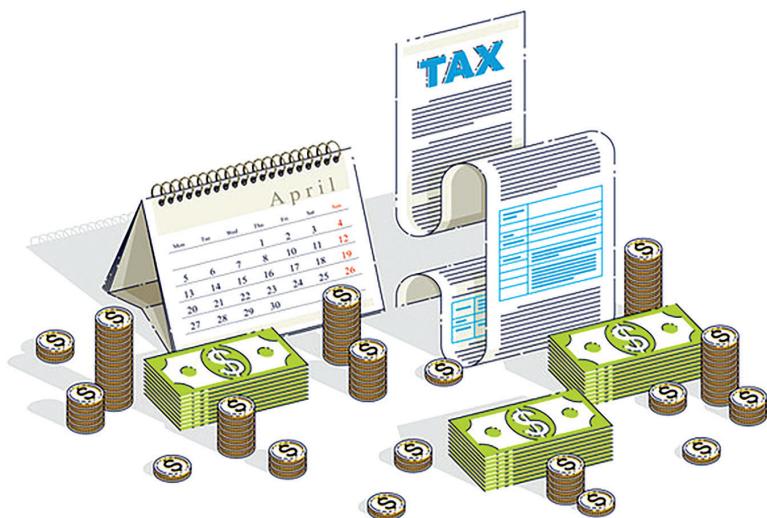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익을 줄여서 제출하려고 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는 최대한 이익을 높여서 제출하려 하지만 이런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납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최근 이슈 중 하나는 과거 은행에 제출했던 재무제표와 세무 당국에 신고된 자료 불일치로 인해 소명 요청이나 은행 자료를 근거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외 (한국, 싱가풀 등)에 예치한 금융 자산이 인니 세무 당국에서 알고 추징을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는 2017에 인도네시아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여 2018년부터 시행함으로써 당시 대통령 긴급명령 1/2017호를 공표하면서 세무당국에서는 모든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취득한 금융정보를 국가간 교환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정보는 금융계좌 소유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에 관련된 소득, 금융 회사의 기본 정보 등이다. 또한 국내 금융 자료도 시스템화되면서 작년부터 세무신고 자료와 금융 정보간 불일치에 대한 이슈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자카르타 재산세(PBB) 감면 규정 :

Peraturan Gubernur DKI Jakarta Nomor 5/2023 Tahun 2023



Kebijakan Penetapan dan Pembayaran PBB-P2 2023

SPPT PBB-P2	Keringanan Pembayaran Maret - Juni 2023	Keringanan Pembayaran Juli - September 2023
Tahun Pajak 2023	10%	5%
Tahun Pajak 2013-2022	20% +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si	10% +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si

Bayar Lebih Cepat, Pasti Lebih Hemat

작년에 이어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는 자카르타 주지사령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공표하였다. 2023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23년 과세연도에 대한 PBB를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PBB를 납부하면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22년 과세연도까지의 PBB 연체금에 대해서도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PBB 연체금을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면 PBB 원금의 20%경감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3년부터 7월부터 9월까지 납부하면 원금의 10%에 경감 혜택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물론 위의 규정은 자카르타만 적용이 되며, 타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끝>

‘재외동포청’ 출범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 내 재외동포청사서 출범식
송창근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명예회장 무궁화장 수훈



6월 5일 오전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 내 위치한 재외동포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종괄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출범식이 6월 5일 오전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 내 위치한 재외동포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청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재외동포청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각지의 한인회장을 포함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 등 600여명의 재외동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출범식은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재외동포청 신설 경과보고(박진 외교부 장관) ▲재외동포청장 임명장 수여 ▲재외동포 포상 ▲대통령 기념사 ▲재외동포청 현판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라고 말하고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세계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란 말로 기념사를 맺었다.

6월 5일 오전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 내 위치한 재외동포청사에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송창근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
의소 회장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제공: 재외동포신문)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외동포청 현판을 전달했다. 또한 그간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에서 송창근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명예회장(무궁화장), 이옥화 前아세안태평양자문위원회 커미셔너(동백장), 구상수 재인도한인회 고문(석류장), 김희경 필리핀한국여성연합회 이사(대통령표장) 등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2023년 6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채무함정 경고” 싱크탱크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BRI,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에 참여한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채무 함정’ (Chinese debt trap)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위기를 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싱크탱크인 CELIOS(경제법률연구센터, 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는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대일로 사업 가운데 하나인 자카르타-반동 고속철 사업의 예로 들면서 경종을 울렸다.

CELIOS 인도네시아-중국연구팀의 줄끼파르 라흐마드 팀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이미 체결이 됐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많다면서 중국이 공여한 차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일대일로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이 71건으로 20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대인도네시아 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대인도네시아 중국 투자는 2020년 48억 달러였다. 비록 2021년에는 30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82억 달러로 급증했다. 줄끼파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부채 함정)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현재 인도네시아는 ‘부채 함정’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인도네시아·중국 합자회사(KCIC)에 따르면 고속철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총사업비도 당초 예상했던 60억 달러보다 16억 달러가량이 늘어난 7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사업 초과액 20억 달러보다는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 수용 보상금 커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사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문제로 사업비가 급증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140개국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일대일로는 중앙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핵심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저개발 국가에 중국 자본을 투자해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고 서로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제공한 뒤, ‘부채 함정’에 빠진 저개발국을 사실상의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진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부채 함정’에 빠진 국가로는 스리랑카가 대표적이다.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에서 대규모 차관을 들여와 ‘함반도타항’을 건설했다. 하지만 항구의 운영 실적은 차관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적자가 쌓이자 결국 2017년 항구의 지분 일부를 중국 국영기업에 팔았고, 항만 운영권까지 중국에 넘겨야 했다.

파키스탄과 라오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중국이 현지 국가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지원해 참여국을 채무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줄끼파르 팀장은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일대일로 프로젝트 완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지만 중국도 인도네시아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지 않고 중국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해서 ‘채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엘니뇨 우려로 인도에서 쌀 100만 톤 수입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인도에서 쌀 100만 톤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엘니뇨로 흉작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인 쌀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최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장관은 현재는 쌀 100만 톤을 조달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인도와 체결했다며, 인도네시아가 비축한 쌀이 고갈되면 쌀이 인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키플리 장관은 종종 농민들은 쌀 수입을 반대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쌀을 수입해야 한다며, 인기 없는 정책이더라도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장관은 올해 이상기후 현상인 엘니뇨 영향으로 쌀 수확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월 말에 국가식량청(Bapanas)이 전국적으로 마늘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마늘을 수입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줄키플리 장관은 국내 생산자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마늘 수입을 반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와의 거래에 앞서 2022년 12월부터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등 국가에 쌀 총 50만 톤을 주문했다.

Bapanas는 올해 쌀 약 2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쌀 수입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동부자바와 중부자바의 소규모 농가들은 쌀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올해 쌀 생산량 예상치가 나오는 8월까지는 쌀 수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아시아 전역이 엘니뇨 영향에 따른 덥고 건조한 날씨로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쌀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쌀 조달이 평소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토그룹, 10억 달러 규모 전기오토바이 합작투자 제조회사 설립

인도네시아 최대 테크기업 고토그룹(GOTO)이 10억 달러 규모의 전기오토바이를 생산하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지난 23일 서부자바주 찌까랑 지역에 공장을 착공했다.

고토그룹은 에너지 대기업인 토바그룹(TOBA, TBS Energi Utama)과 합작투자해 일렉트럼(Electrum)이라는 전기오토바이 제조회사를 설립, 찌까랑에 위치한 산업공단 Greenland International Industrial Center에 공장을 세운다.

고토그룹은 인도네시아 최대 정보기술·물류 테크기업이다. 고토그룹은 2021년 5월 인도네시아 최대 승차 공유업체 ‘고젝’(Gojek)과 전자상거래업체 ‘토코피디아’(Tokopedia)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토바그룹은 광산 및 팜오일 플랜테이션

회사에서 출발, 최근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아디앗마자 엘렉트럼 생산법인장은 “1단계 오토바이 생산공장은 연산 25만대 생산 규모로 앞으로 4년간 10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며 “이 공장은 향후 100만대 생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일렉트럼에서 생산된 전기오토바이는 고토그룹의 승차공유업체 고젝에 공급돼 2030년에는 모두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 2경 8,233조 루피아(한화 약 2,479조 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추산했다.

“조코위 장남, 중부자바 주지사 가상 선거에서 압도적 우위”



Gibran Rakabuming

내년 11월에 열리는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를 앞둔 가상대결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35) 수라까르따(솔로) 시장이 타 후보를 제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기관 파라미터 폴리틱 인도네시아이 발표했다.

집권당 투쟁민주당(PDIP) 소속인 기브란은 지난 2020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해 솔로 시장에 당선됐다. 내년 11월 2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 또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파라미터 폴리틱 인도네시아(Parameter Politik Indonesia)가 최근 실시한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 가상대결에서 기브란의 지지율이 45%로 압도적이다. 지지율 2위는 현 중부자바 부주지사인 타이 야신 마이문(일명 구스 야신)이 5.8% 이어 다른 예비 후보들은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브란, 구스 야신, 핸드라르 등 가상 3자 대결에서도 기브란이 53%의 지지율을 보였다.

아디 빤라얏노 파라미터 폴리틱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기브란이 자카르타 주지사 보다

는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열흘 동안 중부자바 35개 시·군에서 성인 8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1년 솔로 시장에 당선된 기브란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꿈은 아버지 조코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고, 솔로 시장에 이어 주지사에 출마할 계획을 밝혀왔다. 솔로 시 축구팀 퍼르시스 솔로 사에스투의 구단주인 기브란의 동생 까에상 빵아립(27)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 보비 아핍 나수띠온(31)도 지난 2020년에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 북부수마트라주 메단 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조코위 아들과 사위가 2020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당선되자, ‘새로운 정치왕조 출현’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와 관련, 조코위 대통령은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국민에게 달린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도(定都) 496년 맞은 자카르타의 유래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올해 정도(定都) 496년 맞는다. 매년 자카르타 정도 기념일인 6월 22일 전후로 자카르타에서는 자카르타 페어 (Jakarta Fair) 등 대규모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면적은 약 664 km²이며, 약 1,055만명이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다. 자카르타 대도시권(Metropolitan)인 자보데따벡(Jabodetabek) 기준으로 인구는 2,800만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전세계에서 도쿄-요코하마에 이어 두번째로 큰 도시이다. 자보데따벡은 자카르타, 보고르, 테竦, 땅그랑 등 수도권의 위성도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이다. 역사학자가 주장하는 자카르타 역사는 다음과 같다. 자바섬 북서 지역의 젤리옹강 하류에 위치한 오늘날 자카르타는 14세기경 서부자바주 보고르 지역에 있었던 빠자자란(Pajajaran) 왕국의 항구도시로 당시 순다끌라빠(Sunda Kelapa)라 불렸다. 16세 초에 순다끌라빠를 포르투갈이 점령했다. 이후 순다끌라빠 인근의 왕국의 지도자 파타힐라(Fatahillah)가 1527년 6월 22일 이 지역을 탈환

하고, 자야까르따(Jayakarta)라고 개명했다. 자야까르따는 ‘승리와 번영’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이어 16세기 말에 자야까르따를 점령한 네덜란드는 1619년 3월 12일 바파비아(Batavia)로 개칭했다. 이후 바파비아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관장하는 광대한 인도네시아 군도의 무역 본부로 성장하게 된다.

바파비아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배를 받는 300여년 동안 바파비아로 불리다가 1942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자야까르따’를 줄인 ‘자카르타’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1956년 인도네시아 국회는 파파힐라가 자카르타를 탈환한 1527년 6월 22일을 기념해 자카르타 정도(定都)로 확정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나의 암바라와 (Ambarawa) 1

이태복 (시인, 사산자바문화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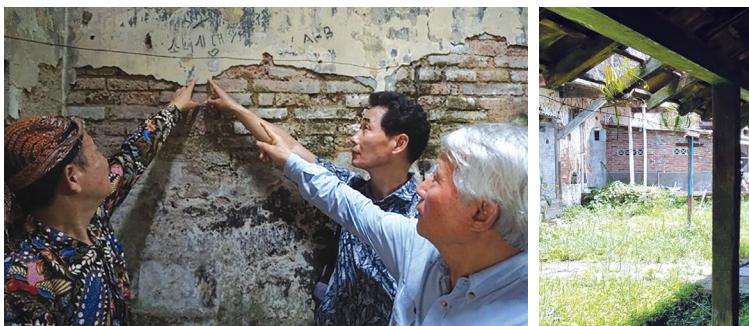


한 사람의 일생에 변곡점이 몇 번이나 있을까?
인생의 여정에서 마음이 사로잡혀 결혼을
하고 변곡점이 되는 것이 일반이다.

1993년이었다. 이곳 중부자바, 살라띠가로 선교 여행을 왔다가 마음이 잡혀 늘 미련을 가졌다. 나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좀 빨리 따라가는 편이다. 2004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미친 듯이 다녀갔는데, 기어코 자카르타에서 잘 되는 사업을 접고 이곳으로 오고 말았다. 이런 나를 현지인들은 ‘자뚜 쪐파 살라띠가(Jatu cinta Salatiga)라 하여’ 살라띠가와 사랑에 빠졌다 ‘라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 내 과거를 돌아보니, 27살 젊은 나이에 겁도 없이 사업을 해서 실패하고 재기에 성공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두 번째 실패까지 하고 보니 자식이 어느새 고1, 중3이 되어 있었다. 그제야 보통의 아버지로 돌아와 민생고를 해결하며 자식 공부시키다 보니 어느새 이순을 코앞에 둔 나이가 되었다. 참 허무한 것이 인생이었다. 자카르타의 이국땅 생활이 그랬다. 그래서 첫 시집 「민들레 적도」에 “쑨다섯 잠에서 깨어”란 시를 남기고 이곳 살라띠가에 와서 글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유행가 가사같이 구름도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 가는 해발 3천이 넘는 머르바부산 중턱, 800m 고지에 사산자바문화연구원을 열고 별레소리 새소리를 벗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게는 무릉도원이었다. 참으로 늙어 가는 것도 잊게 한 지난 7년이었다. 내 시간을 찾아온 시골 생활은 가난했지만, 세끼 밥 먹는데 문제가 없었다. 처음에는 원했던 시간이 너무 많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은 참으로 고독했다. 고독은 두 번째 시집 「자바의 꿈」을 낳았다. 기실, 내가 살라띠가에 온 것은 페벽의 대지같은 소설을 자바를 배경으로 쓰기 위한 꿈도 있었기 때문이다. 페벽은 선교사의 딸로 생후 3개월부터 중국에서 살았다. 그녀는 그 사회의 문화 속에서 자라 DNA는 중국인 같았다. 소설을 쓰는 데는 자바 사랑에만 빠져서 이를 수 없었다. 더군다나 소설을 써 본적도 없었고 33년을 한국에서 자랐으니 자바를 그려내기는 불가능했다. 된장끼를 빼고 자바를 알려고 자바문화 연구원을 열었는데 내게 문득 ‘암바라와’라는 운명이 찾아왔다.

암바라와는 어떤 곳인가? 자바 섬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스마랑에서 두어 시간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3천 미터의 산이 고산으로 둘러싸인 평원에 사각의 성냥갑 모양으로 지은 인공의 요새, 성(城)이 있다. 네덜란드인들이 식민통치시절, 암바라와를 통해 인도네시아 중부자바를 지배하기 위해 건설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1942년, 일본군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남아 있던 유럽인들을 이곳 암바라와로 집결시키고, 그들이 지은 거대한 요새를 포로수용소로 개조하여 그곳에 가두었다. 수용인원이 3만 명을 넘었다 하니, 차신들이 건설한 요새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그 비통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다. 여기까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식민지 시대의 어느 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다. 그저 남의 나라 전쟁사 정도로 묻힐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민족, 조선소녀들의 피우지 못한 꽃이 거기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선을 지배하던 일본은 유럽인들을 수용하고 이를 지키고 감시할 초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조선에서 강제로 또는 그럴싸한 편으로 군사모집을 하였으며, 3천여 명에 이르는 조선인 일본군무원을 동남아시아 전역에 배치하였다. 이곳 암바라와 수용소에도 우리의 조선인이 7백에서 천여 명가량 배치되었다고 한다. 거기에 일본인 군속을 따라 전개된 조선인 위안부의 거처가 요새와 2~3미터 거리를 두고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소설 「암바라와」를 시작했다. 때마침 팬데믹 시절, 고독과 고립은 소설을 집필하는 최고의 친구가 되었다. 본인은 부끄럽게도 컴퓨터 자판을 못 두드리는 짐병이다. 그래서 암바라와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썼다면 믿어줄까? 스마트폰 화면을 얼마나 놀려댔던지 갤럭시8 기종의 아래 자판 문자 자리가 양각으로 보일정도로 화면

이 튀어나와 보였고 화면도 옛날 무성영화 스크린처럼 빗줄기가 내리더니 기어코 꺼져 버려 같아야만 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가 입력되는 것은 손가락 끝이 화면을 터치할 때, 마치 용접봉이 쇠에 닿으면 스파크가 튀듯 손끝과 화면이 닿을 때 감전이 일어나며 문자가 나타난다. 독수리 타법으로 쓴 것이다. 엄지와 검지로 수 없이 화면을 터치하다 보니 아무 리 약전이라도 손끝에 화상을 입게 될 수 밖에 없었다. 급기야 장지 중지 새끼손가락까지 동원했고 결국 열 손가락 모두 화상을 입었다. 조선 포로 감시원과 위안부의 혼적을 찾아 동띠모르에서 동부자바 수라바야까지, 오지를 뛰어다니며 취록하고 썼다. 채록한 세월만 5년이 넘고 소설을 쓴 횟수만 25번이다. 부분적 퇴고까지 합하면 30번은 족히 될 것이다.

떠나온 날, 그 아침 정원은 연초록이었다. 바람소리, 새소리, 떠오르는 소리를 참 많았다. 일상을 떠나 여행길에서 맞는 그 아침처럼 여행길 또한 인생의 한 페이지다. 그 연초록 아침이 “암바라와”라는 장편소설을 낳게 했고, 암바라와는 내가 미처 몰랐던 나를 머르바부산처럼 우뚝 솟게 했다.

*글쓴이 이태복은 1960년 경북 예천 출생이며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회원이다. 시집으로 민들레 적도, 자바의 꿈이 있고 장편소설 암바라와를 출간하였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한 그림전시 및 암바라와 특별 사진전도 개최했다.

(다음호에 계속)





JIKS 인도네시아를 느끼고, 배우고, 즐기자!

'2023 INDONESIA DAY'



Angklung 합주



야자 녹말 채취하기



Dodai 만들기



Team Suku Asmat (Tari Mambri)



2023 PESONA INDO



Longklak 놀이



Pendet Bali 댄스



Wayang 극 관람



Delman 타기



Jajanan Indonesia

지난 6월 16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3 JIKS INDONESIA DAY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JIKS 초등학생 전체, 한인유치원,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박수덕,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등) 및 교민이 참가하여 주재국 인도네시아의 수준 높은 전통과 문화에 대한 직, 간접 체험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였다.

‘Feel Indonesia! Learn Indonesia! Enjoy Indonesia!’ 의 세 코너로 총 2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체험마당과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나아가 JIKS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민들과 인도네시아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축하의 장이 되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송삼순 선생님은 Indonesia Day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나아가 두 나라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며 모두의 화합의 장으로써 즐기는 행사를 기획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가 한-인니 수교 50주년으로 학생들과 교민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제공: JIKS)



Gamelan 악기 체험



— 6월가 맛집! —

Saigon Delight

Bellagio Mall

황지영(PT. Prime Freight Indonesia)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7월의 시작이네요~ 행운의 숫자 ‘7’ 인 만큼 저는 항상 7월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새로운 절반의 시작인 7월이 희망찬 날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지금쯤 무더위가 시작되었겠네요. 자카르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흐르는 땀 방울에 한 해의 절반 동안 쌓인 근심은 다 흘려보내시고 남은 반년은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요리는 더운 여름의 이열치열에 걸맞은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인 Saigon Delight입니다.

베트남 쌀국수는 쌀로 만든 면으로 낮은 칼로리와 함께 한국에서도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아온 지 오래인데요. 그런데 이 베트남 쌀국수(Pho)가 전쟁과 분단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인들에게 각광받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 슬픈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쌀을 경작하기에 최적의 환경에 놓여있어 일 년에 3모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 라 불리는 쌀국수는 베트남 사람들이 분주한 아침 시간의 간편한 식사로 또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이 ‘포’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은데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19세기 말 방직 공업이 번성했던 Nam Dinh의 공장에서 일과를 마친 가난한 노동자들이 육수에 국수를 말아 먹었던 것이 쌀국수의 시초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프랑스의 야채수프인 ‘뽀오페’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포의 국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구운 양파와 생강이 뽠오페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며 베트남 이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리방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 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예로부터 베트남은 농경사회로서 노동력을 중시하여 소를 신성시하여 식용하는 것이 드물었는데, 포에는 대부분 소고기를 쓰는 이유가 프랑스 식민 시절 프랑스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 요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쌀국수는 반세기가 넘도록 하노이 유역의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었습니다. 1954년 제네바 협약으로 북부지역은 월맹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프랑스군은 북위 17도 선 이남으로 철군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남하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문제 때문에 사이공 등의 대도시 주변이나 해외로 망명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들은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차리거나 포를 등에 메고 다니며 음식을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쌀국수는 급속히 남쪽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해외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흥미롭지만 안타까운 쌀국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이 식당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카르타 시내에 여러 점이 많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게에 들어서면 베트남 스러운 인테리어들이 지점마다 조금 다르게 장식되어 있으니 베트남





느낌의 인테리어 보는 것도 흥미로우실 겁니다. 저는 한국, 외국계 회사들이 즐비해 있는 자카르타 슬라탄, 꾸닝안에 있는 벨라지오 몰 지점은 갔는데요. 일단 점심시간이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항상 북적거립니다. 점심시간에 빨리 안 가시면 웨이팅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코너에서 각종 향신료 풀들과 고수, 숙주, 고추, 쪽파, 라임, 마늘, 소스 등을 원하는 만큼 가져오실 수 있으니 취향껏, 양껏 토펑을 얹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요리는 Pho Bo Tai DL (92,000 루피아++)입니다. 쌀국수는 보통 소꼬리와 갈비, 사태에 계피, 향료 등을 함께 넣어 오랫동안 우려낸 달콤한 육수에 소고기 편육을 얹어 먹는 소꼬리 쌀국수인 ‘Pho Bo’ 와, 닭의 고기와 뼈를 고아서 만든 담백한 닭 국물에 닭살을 찢어 올린 ‘Pho ga’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 쌀국수는 꽃등심 슬라이스 쌀국수인데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소고기 육수에 숙주나물과 고수를 얹어낸 뒤 새콤한 라임즙을 뿌려 무난히 드시기 좋을 겁니다. 국물이 진하고 건강한 맛이 일품입니다. 전날 과음하신 분들에게도 해장용으로 아주 딱일 거 같아요. 고 푸드 배달도 가능하니 해장 필요하실 때 Saigon Delight 쌀국수 어떠세요?

나는 소고기 닭고기 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ho Combo Bo Ga (110,000 루피아++) 추천드립니다. 꽃등심 슬라이스, 소 스지와 치킨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Banh Xeo Tom Ga (75,000 루피아++)입니다. 반쎄오란 쌀가루 반죽에 각종 채소, 고기, 해산물 등 속 재료를 얹고 반달 모양으로 접어 부쳐낸 음식입니다. 한국의 파전이나 빈대떡과 비슷하지만, 쌀가루 전병이 속 재료를 감싸고 있는 모양은 타코, 크레페 또는 오믈렛과 닮았습니다.

반으로 접힌 반쎄오를 피자처럼 조각으로 잘라 신선한 잎채소들, 허브나 고수 등과 쌈을 싸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베트남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이 메뉴는 새우와 치킨이 들어 있지만, Banh Xeo Hai San (75,000 루피아++)은 해산물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취향껏 메뉴 선택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Goi Cuon Tom Sa Te (30,000 루피아++)입니다. 한국에서는 월남쌈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베트남은 라이스페이퍼에 채소와 고기를 싸먹는 롤 요리가 많은데요. 안에 신선한 야채의 맛을 잘 살리기 때문에 한 입 베어 물면 건강함과 신선함이 느껴지기로 유명하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음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 드리는 이 요리는 안에 어린 망고, 계란, 새우 토펑이 들어가 있고 베트남 스리라차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토펑이 다르게 들어간 다른 롤들 종류도 많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골라 드실 수 있는데요, 피넛 소스와 찍어 먹는 새우가 들어간 Goi Cuon Tom, 레몬그라스와 꽃등심이 들어간 Goi Cuon Bo, 이것저것 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우, 치킨 패티, 소고기가 모두 다 들어간 Goi Cuon Bon Mua 추천드립니다.

무더위지는 한국만큼 자카르타도 비 오는 횟수도 적어지고 무더위가 시작된 거 같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할수록 불쾌 지수가 올라가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시겠지만, 짜증은 항상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지요. 또 주위의 소중한 사람에게 짜증은 항상 후회로 남더라구요. 맛있는거 드시면서 짜증과 불쾌지수 날려 버리시고 유쾌한 7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8월에 또 맛있는 집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정보 :

<Saigon Delight- Bellagio Mall >

음식 종류 : 베트남 요리

가격 대 : Rp 200,000-25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8:00- 오후 9:45

주 소 : Kav E4/3, The Bellagio Mall,
Jalan Mega Kuningan Barat,
RT. 5 / RW. 2, Kuningan,
Jakarta Selatan 12950

* Google 참고

김종성 변호사,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출마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한인회의 고문 변호사이며 법무법인 인도양의 대표파트너인 김종성 변호사가 2024년 2월 14일에 실시되는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GOLKAR(Golongan Karya)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최종 공천을 받아서 자카르타 제 2선거구(중구, 남구, 해외선거구)에 출마한다.

김종성 국회의원 후보는 1992년에 인도네시아에 입국 후 현재까지 약 31년간 자카르타에서 살고 있으며 중소제조업 그리고 변호사업을 해왔으며 지난 4월 1일에는 GOLKAR당 산하단체인 KOS-GORO 1957의 법률단 의장으로 취임하여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GOLKAR당의 승리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법률단 의장으로서 담당하고 있다.

김종성 국회의원 후보는 출마의 이유 중 한국 동포 사회와 관련된 이유로서 “한국인 1세대들께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목적의 대부분이 사업 또는 취업으로서 일정기간 거주 후 은퇴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보편적인 반면에 2세대 또는 3세대들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인도네시아의 일부로 살아 가기를 더 많이 원한다. 1세대 진출자로서 그 누군가는 2세대와 3세대들에게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살아가는 비전, 방향 그리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당선이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의 위상을 높였지만 만약 당선이 못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밀림의 길 100km를 우선 저부터 50km를 밟아서 오솔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또 다른 한국계 인도네시아 분께서 몇십 킬로 미터의 오솔길을 더 크고 넓게 만들 것이며 그 다음 다음에 또 다른 분께서 더 쉽게 그 길을 밟아서 결국 100km의 대로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동포들의 정치 사회적 위상이 더 커지리라고 확신한다”며 “현재 까지 한국 동포로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경우가 없었고 인도네시아 정치사에서도 외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 국적취득후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은 경우가 없었다. 이번 공천은 비단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에게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외국계 인도네시아인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자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구나 올해는 한국인 진출 103년째의 해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의 뜻 깊은 해이기에 GOLKAR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아 그 의미를 더했다.

김종성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UI) 법과대학에서 소송법을 전공했으며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 후, 현재는 많은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 그리고 한국 동포들의 법적 조력에 앞장서는 법무법인 Indoyang & Partners의 대표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세무변호사 및 과산판재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도 김종성 후보의 당선을 위한 후원회를 결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떠나야 보이는 것들

언어와 분류에 얽혀 살지 않기를

–시작하기 위해 떠난다(Partir pour partir)–



글: 손예리(일본어 번역가)

국제학교에서 다양한 국적의 부모들을 만나다 보면, 엄마 아빠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중동에서 왔나 싶은데 영국인이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왔겠거니 싶은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내 예상이 크게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 상대방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금세 깨닫게 된다. 서로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국적과 피부색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얼마 전, 걸모습과 국적에 대한 흥미로운 영상을 봤다. 미국의 한 동네에서 서양 남자가 우연히 마주친 동양 여자에게 국적과 출신을 반복해서 묻는 영상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양 여자는 당연히 미국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질문을 던진 서양 남자는 피부색과 얼굴만으로 그 여자를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해 놓고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영상 속 서양 남자처럼 묻는다. 우리와 피부색과 생김새가 달라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어가 모국어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인정받으며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내가 아는 것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간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범주와 분류들이 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최근에 읽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큰 울림을 준 책이다. 물에서 서식하고 비늘이 있다는 두 가지 사실만으로 인간들이 편의상 어류로 분류한 많은 종이 사실은 어류보다 포유류와 유사하다는 사실이 과학계에서 이미 밝혀졌다. 사실상, 어류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경계가 없고 아무런 기준선도 그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

이 책은 말한다. 우리가 세상을 더 오래 검토하고 들여다 볼수록 인간들이 정해놓은 범주들이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이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 사회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도 사회 밖으로 나오면 내부에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아직 모르는 것들이 부지기 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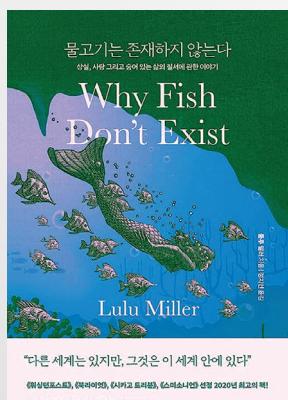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도통 뭐가 맞는 건지 알 수 없고 더 혼란스러운 것도 원래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에 나와 있으면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인식과 정서를 마주하면서 스스로 믿어왔던 것들도 다시금 생각해 보며,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이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게 된다. 외국 생활은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는 자세에 변화를 주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며 무엇보다 ‘나’라는 하나의 인간과 마주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한국에선 당연하다 여긴 것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반대로 한국에서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을 이곳에서 깨닫고 느끼며 기준에 갖고 있던 생각 회로가 자연스레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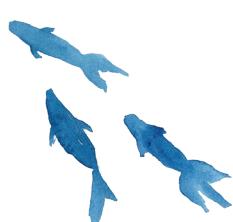
자신의 언어와 분류로 편협한 세계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모국어 수준의 외국어를 연마해 그만큼 더 넓어진 세계 안에서 경계를 만들지 않고 이도 저도 될 수 있는 애매한 세계를 바라보는 일. 내일은 오늘까지의 생각을 언제든 바꿀 수 있고,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유연함을 갖고 자신이 했던 말을 변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편견 없이 살아가는 자세. 언제든 어제까지의 생각을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수필가인가 번역가 전혜린(1934~1965)이 대학 시절, 독일 유학길에 오르며 되뇌이던 문장이 다시금 떠오른다. ‘시작하기 위해 떠난다(partir pour partir)’. 그 말 그대로 그녀는 지평선이 무한대로까지 넓어진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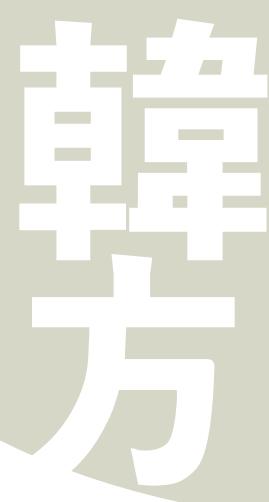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다시 새로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기 위한 ‘안식년(gap year)’ 같은 기간인지도 모르겠다. 자신을 옮아매던 틀을 벗어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7시간을 날아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이 폭풍우는 짜증스럽기만 한 일일까? 어쩌면 그것은 거리를 혼자 차지할 수 있는 기회,
온몸을 빗물에 적셔볼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일 수도 있다.
늘 거기 있었지만 어제선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것.
그러면 세계는 조금 더 벌어지며 열린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에서

«<<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책





목 · 어 깨 통 증

서상영의 한방칼럼2

지난 칼럼에서 소개해 드린 허리통증에 이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목, 어깨 통증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목, 어깨 근육은 스트레스 근육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난 현대인들에게 목, 어깨결림이나 통증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받는 근육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흔히 그리고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좀 지나면 팬찮아지겠지 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부위가 넓어지면서 참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시면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신 분들은 수면장애, 두통 같은 증상이 생기고 오래 방치하면 목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목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뇌에서 뻗어 나온 모든 신경은 목을 통해 지나가고 뇌로 통하는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인체는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목은 머리를 지탱하는 기능뿐 아니라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 어깨 통증은 평소 예방하고 초기에 치료함으로써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인:

1. 장시간의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 오랫동안 앉아서 경직된 자세 유지
2. 긴장된 삶 속에 근육경직, 피로 누적으로 인한 순환장애 (산소 공급 부족, 노폐물 증가)
3. 운동과 활동 부족으로 근육의 탄력성과 근력 감소 (근육과 인대가 약해짐)
4. 반복적인 운동이나 움직임에 의한 조직손상 (염증반응 및 기능장애)

주요 병증

* **근육통**: 조직손상으로 인한 염증 발생. ‘빼끗했다’, ‘근육이 놀랐다’라고도 표현하는데, 활동 장애, 통증,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날 냉찜질, 24시간 후부터 온찜질)

* **담결림**: ‘근육이 뭉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근육을 지나는 경락에 담(노폐물)이 쌓여서 순환장애를 일으킨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므로 소염제를 복용해도 대부분 효과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찜질)

* **위습담**: 위벽에 습담이라는 사기가 침범하여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려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하고 잦은 트림, 입냄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목과 어깨 경락의 기 흐름을 막아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담 결림 같은 염증 질환이 아니므로 소염제를 복용해도 대부분 효과가 없고, 시일이 지나도 저절로 낫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부와 어깨 마사지)

* **낙침**: 평소 누적된 피로와 근육경직으로 생기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온찜질)

* **디스크**: 사고나 외상으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면, 갑자기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거북목, 일자목을 거쳐 발생한 것입니다.

환자는 어느 날 증상이 나타나서, 갑자기 병이 생긴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만성적, 퇴행성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디스크의 주요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저림** – 어깨까지 또는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저림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심할수록 위에서 아래까지(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저린감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팔에 힘이 빠진다** – 악이 약해진다. 물건을 들고 올릴 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

3) **감각이 이상하다** – 남 손가락 같다. 감각이 둔하다 등의 느낌

* 고혈압: 고혈압으로 인한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사람에 따라 무력감, 피로감, 순간의 어지러움, 코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심한 뒷목 빠근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뒷목 빠근한 증상은 대부분 근육 긴장성이 높아져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혈압 체크를 우선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을 일상용어로 바꾸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외상이나 운동 후 또는 운동 부족으로 통증이 생기면 ‘**근육통**’

* 등, 옆구리나 날갯죽지 빠근하고 통증이 있다면 ‘**담결림**’

* 한쪽 또는 양쪽 어깨가 결리거나 아무리 주무르고 스트레칭을 하여도 풀리지 않고, 목 어깨로 계속 손이 간다면 ‘**습담의 위벽 침착으로 인한 목 어깨 결림**’

* 자고 일어나 목, 어깨 뻣뻣함과 좌우상하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면 ‘**낙침**’

* 목 어깨 통증 및 팔 저리고, 감각 이상 시 ‘**목디스크**’

* 50세 전후로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코피가 자주 나고 뒷목이 당기면 ‘**혈압 체크**’

▷ 치료법

– 근육통: **진통소염제**, **주사치료**, **침치료**, **물리치료** 등 조직회복과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치료

– 담결림: **침치료**, **물리치료**, **마사지 치료**, **근육이완제** 등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기혈순환을 좋게 만드는 치료

– 위습담: **침치료**, **한약 치료**, **물리치료** 위벽에 침범해있는 습담을 제거해주면서 목 어깨로 통하는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치료

– 낙침: **침치료**, **물리치료**, **마사지 치료** 근육을 이완해주어 막힌 혈을 풀어주는 치료

– 디스크: **약물**, **침**, **한약**, **물리치료**, **주사요법**, **수술** 등 터진 수액 흡수를 촉진하며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치료

– 고혈압: **혈압약 복용**, **침과 한약 치료**, **생활 습관 변화**

▷ 예방법:

1. 스트레칭: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방법도 많고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영상을 참고하시고 나에게 맞는 2~3가지 동작을 골라 꾸준히 따라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 본인의 몸 상태와 관절 가동범위를 살펴서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온찜질과 가벼운 마사지: 평소 잘 뭉치거나 피로도가 심한 부위를 온찜질 해주시고 크림이나 오일을 이용해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은 피로를 풀고 혈행 개선을 도와 근육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 부위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간혹 강한 압이 시원하시다고, 마사지를 강하게 받으시다가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거나 근육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자신이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건강한 근육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거북목과 일자목을 예방하는 길이고, 거북목과 일자목을 예방하는 것이 목디스크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1~2시간 간격으로 5~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습관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로, 휴식 부족, 운동 부족에 노출된 현대인들의 목, 어깨 질병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개선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통증 부위를 계속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일명 ‘직업병’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술할 정도의 심한 상태가 아니라면 인생을 길게 보시고 조금씩 조금씩 치료와 개선을 병행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 허리디스크 모두 술(알코올 성분)을 멀리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 휴식으로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두 가지의 병이 같이 혼합되어 나타나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침, 담결림의 질환은 대부분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 손상과 함께 몇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록

보통 어떤 부위든 통증이 시작되면 휴식을 취해보고 찜질이나 마사지를 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통증이 심해지면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통소염제 복용 후 통증이 줄어들고 기능이 회복되면 다행이지만, 복용일이 7~10일 경과 하여도 차도가 없다면 침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족저근막염: 걷거나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가 아프고, 특히 아침에 첫발을 내디딜 때 심한 통증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뒤꿈치 주위로 통증이 심하고 보행에 지장을 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치료받을 것을 권합니다.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 엘보우: 골프 엘보우와 테니스 엘보우로 나눌 수 있지만, ‘엘보우 통증’으로 통합해서 부르겠습니다. 엘보우 통증은 대개 반복적인 충격이나 손상이 근육 및 인대에 가해지면서 발생하는데, 엘보우 부위 통증으로 시작해 심하면 **가벼운 물건이나 컵을 드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대부분 인대 부위 손상을 동반함으로 치료 기간이 긴 편입니다. 침 치료는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6~8개월 치료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손목터널 증후군: 컴퓨터와 핸드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질병입니다. 장시간 손목을 같은 자세로 유지하면서 과도한 근육긴장으로 손목의 신경을 압박하면서 생깁니다. **손목의 통증과 저림증상**이 특징입니다.

컴퓨터 사용 시 손목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손목 패드를 사용하거나 핸드폰 거치대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목의 근육긴장을 낮추어야 합니다.

마무리 글

환자분들께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병명이 무엇이고 얼마나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임상에서 병을 치료하다 보면 이론과는 다르게 여러 복잡한 증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명을 검색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같은 허리통증이나 어깨통증 환자분이라도 나이, 기초체력, 손상 정도 등의 이유로 회복속도가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준비했습니다.

딱 잘라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회복이 잘되는 순서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손목 > 허리 > 발목 > 목 > 무릎 > 엘보우 > 어깨

같은 강도의 손상으로 발병했다는 가정하에 정한 것이고, 어깨 부위가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통증은 며칠 안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면 고생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했듯, 나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자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또한 자신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되 전문가의 소견을 귀담아듣는 것이 낭패를 피하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회에 걸친 글을 적으면서 글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임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질병 위주로 특징을 구별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초점을 맞추어 쉽게 풀어서 서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앞으로 실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팁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다음 우울증 편에서는 임상에서 경험한 사례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르한의원 주소: Wijaya Grand Centre

Blok C No. 37 Jakarta Selatan

(위자야센터 안 OK덴탈 옆 위치) 0856 9453 7974

비등점(沸騰點)

김 준 규 시인 / 수필가 /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장

jinn.kim@outlook.com



어느 날 혼자 집에서 일을 보다가 점심때가 되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한끼를 때우는 일에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혼자서 간단히 하는 식사라면 여러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라면처럼 편리한 것도 없는 것 같다.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은 났고, 흥얼거리며 노란 양은 냄비를 꺼내어 렌지 위에 올려놓고 가스불을 켠다.

잠시 후 달그락달그락 집안의 정적을 흔드는 냄비 뚜껑의 흥겨운 어깨 춤! 아래로부터 후끈하게 열리는 에너지의 출구사이에 달구어진 알루미늄 철판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냄비 속에 담긴 물이 비등하는 시점을 기다린다. 물을 가열하면 온도가 상승하다가 어떤 온도의 임계점에 이르면 내부에서 기포가 부글거리며 표면을 평정하고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비등점(沸騰點)이라 하고 이때의 온도를 끓는점(boilingpoint)이라고 한다.

아직도 나의 입맛은 인스턴트식품의 사탕발림에 순진했던 시절을 잊지 않은 걸까? 어떤 간섭도 배제된 호젓한 공간이 되면 자율신경처럼 스멀스멀 작동하는 자유와 무위, 컬러풀한 라면봉지와 스프의 귀퉁이를 가위로 잘라놓고 어린아이처럼 기대에 부풀어 끓어오르기를 기다린다.

뜨거운 열기에 인내를 포기한 물 조각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수증기로 둔갑한 후 급히 승천을 시도 한다. 인스턴트식품의 속성에 통달한 듯 혀끝은 벌써부터 날름거리고 눈치에 익숙한 뱃속의 소화액은 꼬르륵거리며 행군을 시작한다. 희열로 반짝이는 눈빛, 현란하게 끓어오르는 거품에 휘둘리는 탱탱한 면발들, 와! 시식의 타이밍을 놓치면 오늘의 거사는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 서둘러 젓가락을 휘저으며 시작하는 무아와의 만찬.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들이 자주하는 말 중에 스트레스를 꼽는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인 것처럼 병명에 꼬리표를 추가한다. 쓰나미처럼 도래한 문명의 혜택을 포기할 심산이 아니라면 과잉 생산된 풍요와 방만의 부메랑을 다 감당 할 수 있을까? 행동반경이 느려터진 도보의 한계만으로 결정되던 가난하고 청승맞은 옛날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문명의 언어가 돌연변이처럼 우리 몸에 없던 병을 지어내고 변종된 분노의 감정들이 활개를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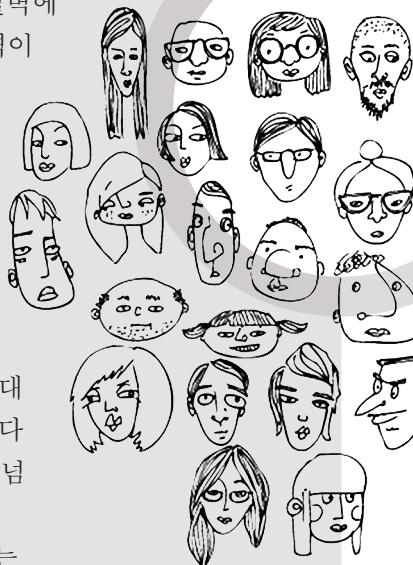
돌이켜 보면 우리들은 그리 멀지 않은 옛날에 짚신 신고 다니던 조상들의 후예가 아닌가, 바퀴로 굴러가는 인력거의 첫 수혜자는 먹이사슬의 맨 앞쪽에서 호령하던 세도가들의 전유물이었다. 신분을 들먹거리던 오만한 귀족처럼 자동차에 오른 운전자는 검은 동공을 흰자의 한쪽으로 몰아넣고 끼어드는 옆 차에게 여지없이 불문의 분노를 퍼붓는다.

깨지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심상치 않다. 부모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자식에게 비교우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 반항의 쓴맛을 겪고 나서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철석같던 남녀의 공생관계는 어느 순간 빼거덕거리며 위태로운 분노의 절벽에서 외줄을 탄다. 냄비 속에서 들볶이는 물은 인내의 한계점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비등점에 도달하면 부풀어 넘치고 비로소 잠잠 해진다. 집단은 이해의 골이 깊고 다양한 욕구의 집합체이다. 피켓을 들고 부글부글 끓던 분노가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늘 높이를 가늠하지 못한 채 스트레스에 피폭된 현대인은 언제부터인가 분노의 노예가 되어 거리를 활보한다.

무탈하고 진부한 일상은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온다. 뭐 없나? 새로움에 대한 욕망이 간헐천처럼 분출한다. 야구시합이 한창인 경기장은 펄펄 끓는 냄비와도 같다. 구름처럼 모여드는 관중들, 스트레스를 한방에 때려눕히려는 타자는 열화와 같은 관중들의 욕구를 외면할 수 없어 보인다. 이윽고 푸른 하늘에 작은 포물선을 그리던 방망이가 명쾌한 타구 음을 토해내고, 둥그런 스타디움을 환호성으로 들썩이게 한다. 조아리는 플라멩고의 머리처럼 관중의 시선은 주먹만 한 야구공의 날아가는 향방에 혼신을 결고 담장을 훌쩍 넘기는 홈런 볼을 바라보며 끝없이 열광한다. 각자의 입맛대로 설정해 놓은 편 가르기는 분노와 희열을 맛보려는 가상의 속셈들이 숨어 있어 그라운드의 열기는 한 순간의 비등점을 확인하려는 눈빛으로 빼곡하다.

융기의 전조인 듯 풍랑이 일던 바다의 고요는 속내를 알 수 없고, 요지부동의 회색 빛 빌딩 속에서 무수한 음모가 꾸며진다. 소일거리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꾸역꾸역 건물속으로 모여들고, 천사처럼 부드러운 말씨의 연사는 몇 날 며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강연에 열을 올린다. 강연장 한편에는 어른들을 유혹할 선물 보따리가 수북이 쌓여있다. 연례행사처럼 터지는 한탕주의는 피아간에 궁합을 끼워 맞추듯 술술 굴러가다가 외도의 절벽에서 최후를 맞기도 한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사건소식은 무관심에 이력이 나 있고, 제도 개선에 몰두해야하는 정치인들은 법률적 모순을 놓고 판단을 유보한 채 저울의 눈치를 살핀다. 사건이 터지면 때를 만난 TV들은 다투어 별떼처럼 윙윙 거린다.

사람들을 불귀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스트레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신의에 좌절한 배우 장자연은 말없이 이승을 떠나갔다. 어떤 정치 선동꾼은 죽은 자의 묘지를 파헤치는데 주저함이 없다. 해당초 존재 하지도 않았을 그녀의 유서는 위조되고 변질되어 이익집단의 도구로 변한다. 무대에 떠밀린 또 다른 허영심 많은 여인은 앵무새처럼 세상을 종횡으로 날아다니며 단숨에 영웅이 되기를 자처 한다. 이를 놓칠세라 언론 매체들은 끓어 넘친 냄비 뚜껑을 두들기며 덩달아 춤을 추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비등점이 남긴 것은 공허한 거품뿐이었다. 정녕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신은 없는 것일까?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와서



글: 무애 이영일 (송파포교원)

지난 5월8일부터 15박16일의 일정으로 오랫동안 소원하고 꿈에 그리던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오게 되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이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약 2시간여 동네 주위를 속보로 걷는 습관이 일상화 되다보니 아침운동하며 마주치는 많은 건강한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었다. 그 중에는 나와 나이가 같고 운동에 진심인 친한 화교친구가 있다.

매사에 성실하고 조깅과 사이클링,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실천하는 친구가 금년 2월 아침운동 중 만나 종종 산행을 즐기는 나에게 히말라야 트레킹 의사를 타진해 왔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흔쾌히 동참의사를 밝힌 후 트레킹에 동행할 면면들을 우선 알고 싶어 사전미팅을 제안했다.

멀고 긴 여정을 동행할 사람들에 대한 사전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된 네 명이 상견례 차 만나 인사를 나눠보니 우선 히말라야 트레킹을 이미 두번 다녀온 유경험자가 있어 안심이 되었고 모두 평소에 운동과 체력관리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라 믿음이 가게 되었으며 나를 제외한 세 명은 모두 중국계 화교들이었다.

특히 히말라야를 이미 두 차례 다녀온 친구는 성격이 부드럽고 친밀하며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원 출신이어서 언어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에게 트레킹 동안 리더의 소임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동경의 대상은 늘 그렇지만 설렘과 두려움, 기대감 등이 함께 어우러지며 남은 기간 세심한 준비과정과 체력운동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동네친구는 60대 중반의 동갑내기이고 한명은 60세, 리더인 친구는 58세의 나이로 모두 적지 않은 나이에 장기간의 고지대 트레킹을 위하여 체력적인 준비와 강한 멘탈이 필수요소로 실감나게 다가왔다.

그 이후로 세 차례를 더 만나 서로간의 준비과정을 점검하고 사전 정보를 교환하며 각각 체력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드디어 출발당일인 5월8일, 잠을 설치며 새벽 04:30분 자카르타 출발, 쿠알라룸푸르 환승, 카트만두 도착인 말레이시아 항공기에 몸을싣고 비행시간 내내 기내에서 긴장감과 히말라야에 대한 막연한 상상으로 쉽게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는 5월8일 현지시간 기준 점심시간을 전후하여 도착하게 되었다.

카트만두의 도착당일 기온이 영상 28도로 다소 덮개 느껴졌다. 카트만두 시내에는 놀랍게도 인니에서 생산중인 현대 CRETA를 비롯하여 많은 한국산 자동차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어 반갑고 놀라웠다. 공항에 마중 나온 현지 트레킹회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호텔에 여장을 풀고 인근 식당에서 가볍게 점심식사를 마친 후 트레킹회사와 오후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다. 미팅에는 우리 일행 네 명 외에 카트만두에서 두 명이 더 합류하여 총 여섯 명이 같은 팀원으로 트레킹 일정을 내내 함께하게 되었다. 한명은 34세 독일 여성으로 함부르크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Maria이고 다른 한명은 동갑내기 여성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는 Pouline 였다.

자기 소개시간을 통해 알게 된 그들은 건강하고 당차보였으며 그동안 세계의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체험한 많은 경험과 체력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 자신감이 충만해 보였으며 우리에게 짊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소중한 인연으로 다가왔다.

이튿날 5월9일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오전 이른 시간 기상하여 호텔에서 국내선 공항으로 차량편을 이용하여 LUKLA행 15인승 경비행기에 서둘러 몸을 실었다.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는 첫 날이며 우리의 최종목적지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E.B.C)로 향하는 거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였다.





다행이 당일 날씨가 화창하여 쌍발 프로펠러 엔진을 탑재한 경비행기가 정상운행을 할 수 있었다. LUK-LA 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30분으로 이륙 후 기내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험준한 산악지대에도 드문드문 촌락들과 조상대대로 닦아왔을 구불구불한 고산지대의 길들이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저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연으로 저곳에서 태어나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사색에 잠시 잠겨있는 동안 갑자기 조그마한 기체가 급작스런 기류의 변화를 만나 상하로 심한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전직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비행기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에게도 예외 없는 극한 공포의 시간이었다.

순간 매일 아침 걸으며 수차례 반복하는 반야심경을 암송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고자 했다. 다행히 곧 기류가 안정되며 경비행기도 순항모드로 돌아왔다. 길지 않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생사의 기로를 느낄 만큼 강렬했다.

이윽고 LUKLA 공항에 기체가 착륙하는 순간 일 반 활주로가 아닌 산속의 요새와 같은 곳에 자리 잡은 경사진 짙은 거리의 아스팔트 활주로였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중의 하나라고 한다. 다행히 무사히 착륙하여 공항을 빠져나오자 갑자기 해발 2,800미터에 걸 맞는 추위와 스산함에 자연스레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배낭에서 두툼한 자켓을 꺼내 입고 손장갑을 끼었다.

마중 나온 현지 가이드 두 명과 대기 중인 포터 세 명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트레킹에 앞서 인근의 LODGE(산막의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간단한 아침식사로 요기를 끝낸 후 가이드를 따라 첫날의 트레킹 일정을 긴장감 속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첫날은 네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수속을 마친 후 입산허가를 받아 PHAKDING, MONJO를 거쳐 비교적 평탄한 코스로 무리 없이 약 6시간을 걸어 정해진 숙소에 도착했다.

히말라야 트레킹 중 머무는 모든 숙소는 일단 난방과 온수공급은 물론 휴대폰 충전조차 불가하며 2인 1실 기준으로 침대도 합판과 나무를 섞어 자체 제작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그 위에는 다소 두툼한 이불 한 장과 조그만한 베개가 전부이다.

그나마 휴대폰 충전을 원할시 LODGE 직원에게 별도의 부탁을 통해 소정의 전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지대의 추운날씨에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침대 위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잠을 청하는 것도 큰 난제중의 하나였다.

준비해온 내의와 자켓, 두툼한 파카를 입고 텔모자까지 눌러 쓴 채로 슬리핑 백속으로 쏙 들어가 잠을 청해야하기 때문이다. 화장실도 대부분 숙소와 떨어져 있어 야간에 잠자다 일어나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대로 히말라야가 어떠한 곳인가?

세계 최고의 고산지대이며 선택의 여지없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운송수단이 야크와 말, 당나귀 등의 가축과 무거운 등짐을 지고 가파른 길을 숨가쁘게 오르는 인력이 전부인 곳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이마저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로 전혀 불평불만을 제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 늦지 않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트레킹 이틀째,

LODGE에서 제공하는 수프와 토스트 몇 조각으로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끝낸 우리는 NAMCHE BAZAR(3,440M)를 향해 8시간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출발 전 가이드가 오늘 매우 힘든 일정이 될 것이라고 잠시 브리핑을 했는데 과연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오르막길의 연속으로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다. 힘들게 걸어가며 중간 중간 마주치게 되는 등짐을 잔뜩 지고 목에 방울을 단 동물의 무리와 마주칠 때면 우선 길을 비켜선 후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

트레킹 도중 종종 가파른 절벽 사이를 길게 가로지른 아찔한 현수교(출렁다리)를 건너야 했으며 폭 좁은 산길을 걸으며 때때로 계곡사이로 불어오는 강풍을 만날 때면 아득한 절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긴장감으로 모골이 송연해지곤 했다.

5월은 일 년 중 그나마 날씨가 화창하여 히말라야 트레킹에 좋은 시기라고 한다.

숨이 턱밑까지 올라오는 중에도 저 멀리 어렴풋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연이은 고봉들과 운해가 어우러진 기막힌 광경에 트레커들의 탄성과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쯤 우리 팀원 중 나와 동갑내기인 화교친구의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며 후미로 쳐지기 시작했다. 팀원 맨 뒤에서 따라오던 보조 가이드에게 메고 있던 배낭을 넘겨주고도 팀원들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와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이 되어 주던 친구가 뒤로 쳐지기 시작하자 걱정과 함께 향후 일정에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의 트레킹 일정도 어쩌면 해내기 힘들겠다는 부정적 생각이 앞서며 내내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 친구는 팀원들과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일 여덟 시간의 강행군을 힘들게 마칠 수 있었다. 트레킹 내내 나

와 같은 방을 쓰는 투메이트라 자연히 많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속도에 연연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걸어 끝까지 함께하자는 다짐을 했다.

트레킹 일정은 최종목적지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오르는데 9일, 베이스캠프부터 LUKLA 까지 하산하는데 3일, 도합 12일이 소요된다.

다만 오를 때는 고산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 3,500미터 시점부터 4,500미터 구간까지 고지대로 올랐다 다시 저지대로 내려왔다를 몇 차례 반복하며 고지대 저산소증에 대한 적응력을 키운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며 TENGBOCHE(3,860 미터)에서 1박, DINGBOCHE(4,410미터)에서 1박을 하는 동안 팀원 중 나에게 제일 먼저 고산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두통이 심하게 나고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며 구토 중세까지 동반하는 고산지대의 무서운 복병으로 심하면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 우선 가이드가 건네주는 고산병 치료제인 다이나목스를 복용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이면 두통이 찾아와 숙면을 취할 수 없었으며 아침이면 수면부족에 식욕이 떨어져 식사를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입에 내키지 않는 음식들을 쳐절하게 (?) 입속으로 밀어 넣으며 트레킹에 필요한 열량을 뱃속에 강제로 채워 넣기에 바빴다. 그야말로 음식물 섭취가 고행이고 고역이었다.

트레킹 6일째 되는 날부터 고산증을 앓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발걸음이 무뎌졌다.

매일 저녁이 되면 동행하는 가이드가 팀원들의 혈중 산소포화도(spO2)를 측정한 후 정상수치에서 벗어난 경우 위험수치임을 통보하며 다음 일정에 대한 의사를 가이드와 상의해야 한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긴장된 순간이다. 나도 한차례 가이드로 부터 트레킹을 계속하기에 위험한 수치임을 통보 받았다. 순간 오만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일어났으나 트레킹 책임자인 가이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 시킨 후 끝까지 완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고하게 드러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동의해 주는 듯했다.

트레킹 7 일째부터 고산증으로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면서도 높이 오를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웅대하고 장엄한 태고의 신비, 히말라야의 진면목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환상적인 모습에 암도당하며 경이로운 광경에 눈과 입을 닫을 수 없었다.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이 빛어낸 단연 최대 최고의 비경들, 인간이 지어낸 어떠한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으며 신들이 살고 있는 천상계에 몰래 살짝 발을 들여놓고 있는 듯한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느낌이었다. 그 순간 지금까지 겪어오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말끔히 사라지고 환희로 가슴이 벽차오르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히말라야에 대한 나의 이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감동의 파노라마였다.

때때로 불어오는 강풍과 칼바람에 귀와 손이 시려운지도 모르고 텔모자와 장갑을 벗어던지고 연신 휴대폰을 꺼내 작은 화면에 나마 꿈속의 비경들을 차곡차곡 담아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지상최대의 장엄하고 봉황적인 비경들이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구름에 가리워지며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히말라야의 수많은 봉우리들 중 8,000 미터 이상 14좌를 고봉으로 설정해 두고 앞 다투어 정상에 오르며 오로지 산의 높이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인간의 잣대로 사랑하고 분별한다.

그중에서 세계의 최고봉을 ‘에베레스트’라 명명하고 세계의 지붕이라 부르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에베레스트의 정상엔 그동안 거쳐 간 등반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고 원망스럽다. 여기에는 산을 그저 정복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편향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지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 사랑하고 분별하거나 취사선택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들이 그들의 잣대로 산을 알음알이로 재단하며 오염시키고 있을 뿐이다.

내가 본 히말라야는 높고 낮은 산맥들이 연이어 조화롭게 위치하며 서로를 묵묵히 반쳐주고 드러나게 할 뿐이다. 그러한 조화로운 모습들이 한데 잘 어울려 태초의 모습 그대로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신비로운 자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산은 본연의 존재하는 모습 전체를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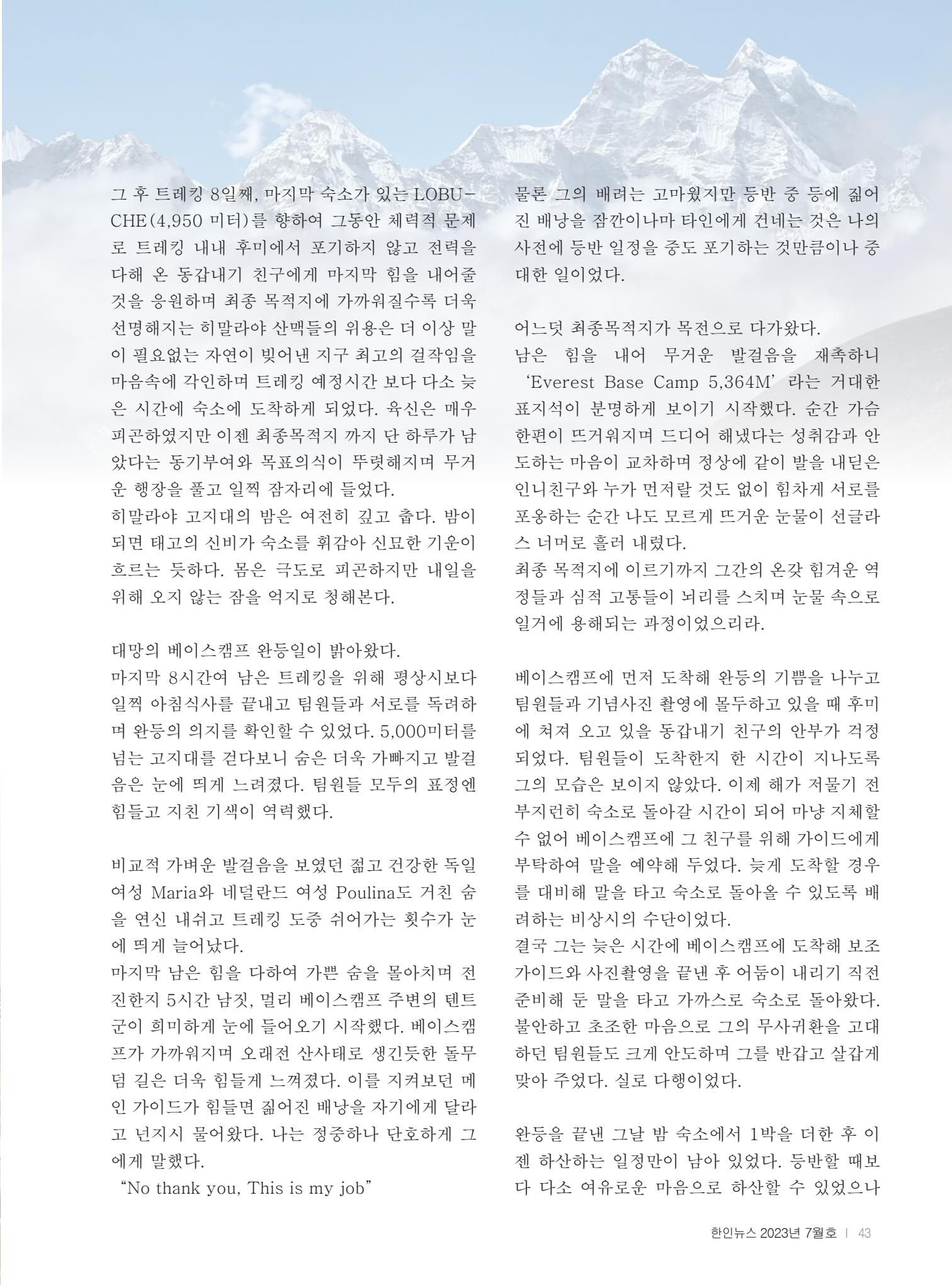
전체를 보지 못하고 높이만을 폐어 산을 평가하고 구분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신체의 일부분을 만져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어리석음과 같으리라.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다본 산들이 구름과 함께 자취를 감춘 후 다시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그 이후로 육신은 많이 지쳐있고 힘들었으나 마음은 오히려 맑게 밝아 오는듯한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다.

역사적으로 2,600여 년 전 고타마 싯다르타가 왕궁으로 부터 출가한 후 깨달음을 이루고자 히말라야 설산수도 및 목숨을 건 용맹정진 후 마침내 새벽녘 보리수 아래서 확연히 깨우치신

‘중도연기실상’이 반야심경과 함께 자생화두처럼 트레킹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화두일념으로 초유의 체험이며 스스로도 경이롭게 느껴졌다. 이 화두에 대한 몰입은 이를 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도착할 때까지 또렷하게 지속되었으며 트레킹 중반에 육체적인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 후 트레킹 8일째, 마지막 숙소가 있는 LOBU-CHE(4,950 미터)를 향하여 그동안 체력적 문제로 트레킹 내내 후미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온 동갑내기 친구에게 마지막 힘을 내어줄 것을 응원하며 최종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히말라야 산맥들의 위용은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자연이 빛어낸 지구 최고의 걸작임을 마음속에 각인하며 트레킹 예정시간 보다 다소 늦은 시간에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육신은 매우 피곤하였지만 이젠 최종목적지 까지 단 하루가 남았다는 동기부여와 목표의식이 뚜렷해지며 무거운 행장을 풀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히말라야 고지대의 밤은 여전히 깊고 춥다. 밤이 되면 태고의 신비가 숙소를 휘감아 신묘한 기운이 흐르는 듯하다. 몸은 극도로 피곤하지만 내일을 위해 오지 않는 잠을 얹지로 청해본다.

대망의 베이스캠프 완등일이 밝아왔다.

마지막 8시간여 남은 트레킹을 위해 평상시보다 일찍 아침식사를 끝내고 팀원들과 서로를 독려하며 완등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000미터를 넘는 고지대를 걷다보니 숨은 더욱 가빠지고 발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팀원들 모두의 표정엔 힘들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비교적 가벼운 발걸음을 보였던 짧고 건강한 독일 여성 Maria와 네덜란드 여성 Poulina도 거친 숨을 연신 내쉬고 트레킹 도중 쉬어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가쁜 숨을 몰아치며 전진한지 5시간 남짓, 멀리 베이스캠프 주변의 텐트 군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베이스캠프가 가까워지며 오래전 산사태로 생긴듯한 돌무덤 길은 더욱 힘들게 느껴졌다. 이를 지켜보던 메인 가이드가 힘들면 짧어진 배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널지시 물어왔다. 나는 정중하나 단호하게 그에게 말했다.

“No thank you, This is my job”

물론 그의 배려는 고마웠지만 등반 중 등에 짊어진 배낭을 잠깐이나마 타인에게 건네는 것은 나의 사전에 등반 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중대한 일이었다.

어느덧 최종목적지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남은 힘을 내어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니 ‘Everest Base Camp 5,364M’ 라는 거대한 표지석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며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과 안도하는 마음이 교차하며 정상에 같이 발을 내딛은 인니친구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힘차게 서로를 포옹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선글라스 너머로 흘러 내렸다.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온갖 힘겨운 역정들과 심적 고통들이 뇌리를 스치며 눈물 속으로 일거에 용해되는 과정이었으리라.

베이스캠프에 먼저 도착해 완등의 기쁨을 나누고 팀원들과 기념사진 촬영에 몰두하고 있을 때 후미에 쳐져 오고 있을 동갑내기 친구의 안부가 걱정되었다. 팀원들이 도착한지 한 시간이 지나도록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해가 저물기 전 부지런히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마냥 지체할 수 없어 베이스캠프에 그 친구를 위해 가이드에게 부탁하여 말을 예약해 두었다. 늦게 도착할 경우를 대비해 말을 타고 숙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비상시의 수단이었다.

결국 그는 늦은 시간에 베이스캠프에 도착해 보조 가이드와 사진촬영을 끝낸 후 어둠이 내리기 직전 준비해 둔 말을 타고 가까스로 숙소로 돌아왔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의 무사귀환을 고대하던 팀원들도 크게 안도하며 그를 반갑고 살갑게 맞아 주었다. 실로 다행이었다.

완등을 끝낸 그날 밤 숙소에서 1박을 더한 후 이젠 하산하는 일정만이 남아 있었다. 등반할 때보다 다소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산할 수 있었으나

경험상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훨씬 더 조심하고 집중력을 기울여야 한다.

6~7년 전 인니에서 등반을 마치고 하산하다 실족하여 다리 골절상을 입고 두 달 동안 목발에 의지한 적이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리라.

노년기에 욕망의 높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전 재산을 잃거나 소중한 건강과 명예를 잃고 여생을 방황하며 불행하게 보내는 안타까운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아왔다.

하산은 3일에 걸쳐 하루 8시간 이상씩 지나온 길로 되돌아가는 강행군 끝에 무사히 트레킹의 시발점이었던 LUKLA로 돌아와 LODGE에서 1박을 하고 이튿날 오전 경비행기를 타고 카트만두로 돌아와 대장정을 마친 후 호텔에 행장을 풀고 그동안 미루어 왔던 목욕을 기분 좋게 끝낸 후 체중계에 몸무게를 재어보니 집을 떠나기 전보다 무려 7kg이나 빠져 있었다.

그날 저녁은 트레킹 회사에서 완등을 축하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축하연을 카트만두의 잘 알려진 극장식 식당에서 베풀어 주어 전통춤을 관람하며 팀원들과 함께 네팔 전통음식과 전통주로 즐겁게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이번 히말라야 트레킹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나름 깊은 사색을 통하여 나의 기존 삶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오리라 생각되었다. 지금보다 젊고 건강한 시절에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면 그저 높은 산에 올라 멋진 광경을 배경으로 몇 장의 사진을 남긴 청춘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 마냥 젊지만은 아닌 지금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깊이 사색하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보다 단단해져 돌아올 수 있었다.

히말라야 태산들과 같이 당당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세상의 파고와 욕망의 높에 빠져 허우적대는 혼돈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리라.

여생을 살아가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히말라야의 굳건하고 웅장하며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주위와 조화롭게 향상하는 히말라야의 태산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리라.

이번 트레킹을 함께한 인니 친구들, Maria와 Poulina, 트레킹 내내 길잡이가 되어준 친절한 두 명의 가이드와 무거운 짐을 말없이 숙소로 운반해 준 세 명의 포터들, 순박하고 맑은 눈을 가진 친절한 네팔의 원주민들 그리고 응원해준 가족들과 여러 친구들에게 두루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두 아들과 여러 조카들, 친구들에게 이번 나의 등정이 그들의 삶에 다소나마 목적한 메시지로 다가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

산새 친구들과

김우재(한국문협 인니지부 고문)



자주 가는 자고라위 골프장
사십 년의 체력 단련장
우거진 숲속에 야자수 수만큼 이야기가 많다
깊은 개울가 높은 나무숲을 지나려면
산새들이 조잘조잘 수다를 떨지
아마 홍사*가 오는 날을 기다린 듯
후후훗
새소리
나도 못 할 줄 아니?
내가 제일 잘하는 휘파람 소리가 너희들 소린데
후후훗
휘파람 소리 힘차게 날리면
새들도 화답하여 라운딩이 흥겹다
니들이 부끄러워 보이지 않는 날도
나의 휘파람에 나오는 걸 너희들은 알거야
브르끼짜우*
인니말로 속삭여도
이곳에 너희들과 수십 년이란다
배고파도 브르끼짜우
연애할 때도 브르끼짜우
브르끼짜우 노래를 부르니
우리는 정녕 친구로군!

*홍사(洪史): 시인의 자호

*브르끼짜우(berkicau): ‘새들이 지저귀다’ 는 뜻.

>> 「문학탐방」을 시작하며....

이곳은 문학관련 다양한 행사와 작품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올해는 한,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협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우재 시인님의 시집 「무궁화 꽃 피고」에서 한 편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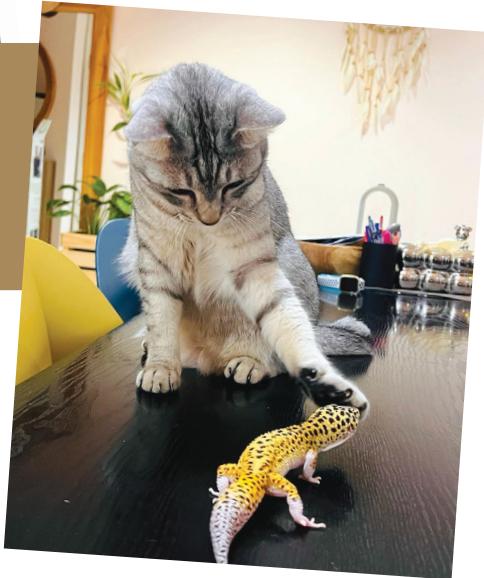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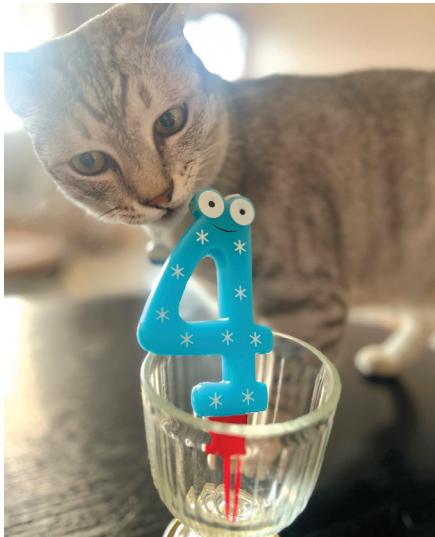
시에 등장하는 산새, 새가 정말로 ‘브르끼짜우’ 인도네시아 말로 속삭일까요? 설령 인도네시아 말로 속삭여도 “이곳에 너희들과 수십 년” 생활을 한 시인에게는 다 들리는 법이겠지요.

“배고파도 브르끼짜우/ 연애할 때도 브르끼짜우/ 브르끼짜우 노래를 부르니/ 1977년에 인도네시아로 이주 해온 시인의 인생길에서는 던지는 울림이 큰 시인의 독백, 우리는 정녕 친구로군!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백호 #생일냥이 #파뤼냥이
쓰담이 초코와 함께 한
백호의 네 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1

백호 (4살, 여) 2019.5.29일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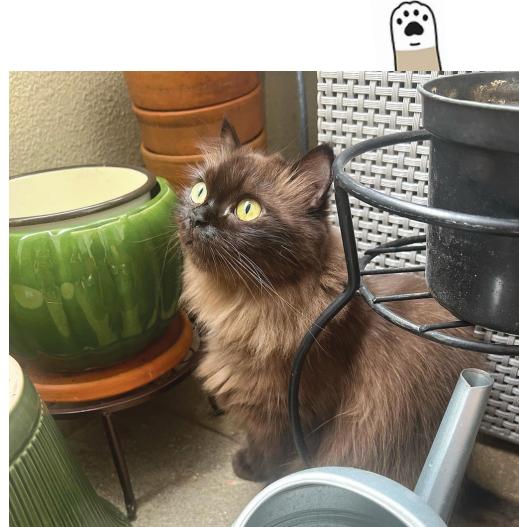
엄마가 길고양이 출신으로 길거리 헤매다 어느 맘씨 좋은 분이 거둬들여 집에서 출산했어요. 세 자매로 태어나 백호만 분양받았어요. 남자아이라고 해서 웃 입은 색깔을 보고 백호라고 지었지만 알고 보니 여자였어요! 새끼 때부터 온 아이라 그런지 엄마한테 애교가 많아서 아직도 꾹꾹이를 좋아해요. 식탐이 많아 언니 동생 것도 빼앗아 먹는 욕심쟁이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뚱뚱하답니다. 대범한척하지만 누군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숨고 제일 늦게 나오는 소심쟁이 백호.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생일도 함께하자.

2

쓰담이 (3살, 남)

2021년 8월경 바리또 시장에 귀뚜라미 사러 갔다가 철장에 갇힌 쓰담이를 발견했어요. 조심조심 쓰다듬었더니 내 손길이 좋은지 가르릉거리며 좋아했어요. 눈에 밟혀 다음날 데리러 갔어요. 누구보다 활발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성격이에요. 항상 누나들과 놀고 싶어 하지만, 유난히 큰 덩치와 까불거리는 성격 때문에 누나들한테 하악질을 당해요.

애정 듬뿍 담긴 꾹꾹이 마사지를 받아라냥~



작은집사, 초등학교 졸업을 축하한다냥~

3 초코(5살, 삼)

가장 먼저 집에 온 아이지만 손타지 않아요. 늘 어딘가에서 엄마를 주시하고 있답니다. 화장실도 쫓아다닐 정도로 엄마를 스토퍼지만 만질 수 없는 아이! 이전 집 작은 집사의 알레르기로 인해 재분양을 해서 만나게 됐어요.

재밌는 사실은 스스로 ‘나는 일인자다냥!’ 생각하지만 아무도 우대해주지 않아요. 백호와 쓰담이의 냥펀치에 맞거나 쫓겨 다니기 바빠요.

사랑하는 쓰담이, 백호 초코에게.

정말 사랑하고 제발 싸우지 말고 아프지 않았으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내가 보는 앞에서 고양이별로 떠나길.

- 큰집사: 최홍준 & 국미옥

작은집사: 최도영

[헤리티지 7기 탐방기]

바틱박물관을 다녀오며

강순원(헤리티지 7기, 버카시)



따만미니 바틱박물관 투어 후 토라자 지역 똥꼬난(Tongkonans) 가옥 탐방



헤리티지 7기 국립박물관 마지막 발표 후 기념 촬영

비고 송한 햇살 내음을 머금은 면바지에 헐렁한 셔츠를 입고 아침 산책하듯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한 3개월의 헤리티지 코리아섹션 교육 과정. 저에게는 3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3분 스피치’와 ‘2시간 30분의 강의’는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코리아섹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마지막 리허설이 있던 날. 국립박물관에서 7기 동기들과 그동안 지도해준 선배들 앞에 헤리티지 도슨트(Docent, 박물관 유물·문화해설사) 자원봉사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Heritage 연혁을 보면 1970년 ‘가네샤 소사이어티’ 산하 ‘가네샤 자원봉사회’ 설립하며 ‘박물관 지원’이라는 공동 관심을 가진 설립자와 17명의 ‘가네샤(지식에 대한 목마른 갈증을 나타내는 힌두신)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자선 단체이며 1994년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로 단체명을 공모, 변경하며 연꽃 로고 선정합니다. 1995년 인도네시아 문화기관, 특히 국립박물관 지원, 인도네시아 문화유산 지식과 이해도를 넓히는 목적의 비영리 재단 설립됩니다.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도슨트의 주 활동무대는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Museum National Indonesia)입니다. 1778년 네덜란드 식민정부, 바타비아 과학예술협회(The Batavian Society of Arts and Science) 설립, 1862년 현재 박물관 자리에 완공하였고, 1869년 이후 일반인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IHS(Indonesia Heritage Society)

인도네시아 문화와 역사에 관심과 이해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2018년에 결성되어 약 30개 국적, 500여 명의 회원이 백여 가지의 활동을 하는 자선 단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의 7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활동.

6월 첫째 주. 적도의 군도, 인도네시아의 오전은 서서히 데워지는 전기포트처럼 끓기 시작했다. 작렬하는 태양 아래 눈부시고 바람 한 점 없이 또렷한 푸른 여름 하늘. 첫 탐방 투어 장소로 따만미니 바틱박물관이 잡혔습니다. 따만미니 바틱박물관에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밀하며 대표적인 문양의 면, 실크 섬유로 된 다양한 바틱 천과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틱에 관한 모든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바틱은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매해 10월 2일을 ‘바틱데이(Batik Day)’로 지정했습니다.

기원전 4,000년 전 술라웨시 지역의 동굴벽화 납염법을 이용해 손과 돋지를 그린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바틱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5세기 바틱 문양이 있는 천 조각이 발견되었고 그 후로 자바섬 곳곳에서 발견된 석상이나 건축물에서 바틱 문양은 발견되고 있으며 자바섬의 문화유산입니다. 1520년경 자바 서남부 갈루에서 바틱 Batik이라는 단어 대신에 Tulisan=drawing이나 Lukisan=painting라는 단어를 사용한 두루마리 문서가 발견됨으로 일종의 그림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1800년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독특한 수작업인 예술작업으로 유럽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고 이후 대량 생산하며 대중화되었습니다.

바틱은 ‘Malam-말람’이라는 밀랍 왁스 혼합물(beewax-밀랍, 송진, 동물성기름, 유칼리유, parapin-파라핀 등)로 천을 방염+염료 염색하는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으로 섬세하게 수작업하는 바틱 뚫리스(Batik Tulis)와 짭(Cap)이라는 구리로 된 문양틀 도장을 이용 천에 반복적으로 찍어 무늬를 내는 바틱 짭(Batik Cap)이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바틱 콤비나시(Batik kombinasi)가 전통적으로 통용되며 현대에는 실크스크린으로 제작되는 바틱까지도 바틱의 대중화에 기여하며 범주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바틱 외에 전통 직물로는 이깟(ikat), 더블이깟(double ikat), 송겟(songket)은 직물을 짜기 전에 실을 염색해야 하는데 날실(세로방향)과 씨실(가로 방향) 중 하나 또는 둘 다 염색하여 나무 틀에 팽팽하게 묶어놓고 섬유질이 염색되지 않게 묶어 염색되지 않게 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원하는



모나스 광장 북서쪽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구관: 석상관, 민속관

*신관:

1층 - 인류와 환경(선사시대)

2층 - 지식, 기술, 경제(역사시대)

3층 - 사회구조, 의식주, 문화

4층 - 도자기관, 보물관(사진 촬영 불가)



바틱박물관 전경

색깔을 얻으면 날실을 베틀에 세워 씨실로 이깟을 직조하고, 거기에 금실이나 은실을 보충 사용한 것은 송랫입니다. 빨랩방 지역에서 송랫은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주는 예물로 쓰이며 이것을 가보로 여기고 중요한 가족 행사 때만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 월러스라인의 서쪽 중부 자바 비옥한 평원지대에서 세련되고 복합적인 문화가 꽂피우며 다양한 바틱이 제작되었습니다. 초기 바틱은 왕실에서만 사용되며 왕가에서 사용 가능한 모티브를 이용하였다가 점점 그 주변 인들로 퍼져나갔습니다. 모티브나 색깔(소가나무 염료 갈색)로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나 서열을 나타냈습니다. 종교의식 및 출전 의식, 결혼식, 장례식, 임신 7개월 축하 행사 등 많은 예식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중부 자바 마타람왕국의 수도였던 족자카르타와 수라카르타, 서부 자바 북부 해안 찌르본은 중부 자바 내륙에서 볼 수 없는 외래문양 특히 중국문화와 이슬람교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토착 힌두 문양과 중동 무슬림 문양, 인도 무굴 예술이 혼합되었고, 자바 북부 해안도시 빼깔룽안 바티크는 중국인, 아랍인, 네덜란드인들이 드나들며 규범과 규칙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활기찬 것이 특징입니다.

바티크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을 한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의 인도네시아 방문 때 적극적으로 전시 및 홍보하며 착용하게 하였으며, 제2대 대통령 수하르토는 공무원이나 학교 기업들까지도 바티크 셔츠 입기 등으로 일상에서 대중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화와 일상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한 바티크박물관의 해설자의 설명과 함께 바티크 체험 또한 가능하여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티크가 현대에 일상화된 것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한복도 더욱 널리 알려져 일상복이 되기를 바라는 하루였습니다.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회장 전민식)는 6.25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자카르타 한인동포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을 6월25(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나래홀에서 개최했다.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은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하고, 6.25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민주평통 인도네시아 지부, 인도네시아 한인회, 한국대사관, JIKS 교원과 학생, UPI 교육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수단 입장(6.25전쟁참전국, 의료지원국, UN, 한국)을 시작으로 개회사 전민식 회장, 격려사 박수덕 공사, 축사 박재한 한인회장, 나라사랑 글짓기 경연 환영사 이선아 교장, 만세삼창 송재선 원로고문이 맡았다.

전민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동족상잔의 아픔을 이겨내고 현재는 세계경제권 10위권 국가로서 전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로 살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전했다.

또한 전회장은 “올해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는 언제나 교민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봉장이 되는 단체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맞아 ‘JIKS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초등부는 최우수상 송하윤(6), 우수상 홍서한 김채아, 장려상 박서윤 이하언 이다애 하준서 학생이 수상했다.

중고등부는 대상 송현수(12), 최우수상 김가온, 우수상 탁수현 윤혜원, 장려상 김시온 이서진 박채은 박준범 학생이 수상했다.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UPI 교육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화려한 발표가 이어졌다.



(제공: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

한·인니문화연구원, 서울예술대학교 MoU 체결식 및 감사패 수여식



2023년 5월 24일,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서울예술대학교 간의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체결식 및 감사패 수여식이 열렸다. 2016년 류덕형 전 총장과 MoU 체결 이후 7년 만에 유태균 현 총장과 MoU를 재체결하며 두 기관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교육, 창작, 예술 활동 분야에서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기로 협의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사공경 원장이 인도네시아

의 문화교류를 위해 헌신하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서울예술대학교의 문화, 학술 교류에 기여한 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이러한 높은 뜻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증정했다.

[참석자 명단]

- 서울예술대학교: 유태균 총장, 정한솔 교수 (대외협력처장), 오준현 교수, 정효진 (대외협력처 팀장)
-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 이해자 특임연구원, 박준영 팀장, 인도네시아 아티스트 R. FRANKI SURYADARMA NOTOSUDIRDJO Ph.D.

한·인니문화연구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과 협약 체결

2023년 5월 31일 오후 1시 30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한·인니문화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은 학술과 교육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 안미경 부원장(문화해설사), 김소영 팀리더(고려대 박사과정 발리 건축 연구), 아세아문제연구원의 이진한 원장, 신재혁 센터장, 고영경 연구위원님이 참석해 두 연구원이 앞으로 교류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논의도 간단히 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의 아세안센터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센터이다.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아세안센터는 상호 방문 및 교류, 학술 및 교육 목적의 정보 교환, 공동연구 활동, 기타 필요 사업 등의 분야에서 함께 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이진한 원장님은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8월에 있을 아세아문제연구원과 대학생들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다양한 학술 연구 계획, 바둑 관련 전시, 11월로 예정된 학술대회에 대하여서도 대략적으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나무 심기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 초등과정 전교 학생회 임원단(학생회장 홍서한 외 15명)은 한, 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연대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관으로 진행한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나무 심기 활동에 참여하였다. 보고르 뽐독 라제 도시숲 조성 사업지는 쓰레기 매립지역으로 산림복원 및 도시 숲 조성을 위해 코린도 그룹에서 지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곳이다.

Plant Our Planet 캠페인 활동과 함께 나무 심기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함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물살을 가르고, 건강을 키우며! 신나는 수영 대회 2023 JIKS Swimming Competition

지난 5월 26일 (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3 JIKS Swimming Competition 행사가 진행되었다. 작년에 이어 실시된 이번 대회를 위해 꾸준히 수영을 배우고 실력을 늘려온 68명의 학생들은 멋진 수영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는 남녀, 학년별(1~2학년 25m/3~6학년 50m)로 나누어 자유형, 배영, 평영 시합을, 5학년 학생들의 접영시합까지 포함하여 총 4개 종목의 시합 총 27개의 경기로 구성되었다.

본교 수영장에서 개최된 대회는 교장선생님의 개회사를 시작

으로 준비운동, 학생들의 출발 시범 참관 후, 본격적으로 종목별 개인 경기가 시작되었다. Mr. Joe와 Mr. Kevin(JIKS, 영어원어민교사)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수영 경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많은 학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응원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멋진 승부를 펼친 선수들에게는 성별, 종목별 금, 은, 동메달이 수여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수영 실력과 체력을 기르고, 경기의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나아가 친구를 서로 응원하며 도전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행사 관련 영상은 직스 유튜브 채널(<https://shorturl.at/sIRT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부 (2)
Salam

지난호에 이어

김아람 (사무직, 자카르타)

아우성치는 다혈질의 기운이 날아간 도시는 고요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도시는 가까이 갈수록 혼잡했다. 북한산의 과묵한 푸름에 기대어 호흡을 달랬다.

<안 끝났냐? 답 좀 해라. 인마!>

적당히 답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풍경을 찍어 보낼까 하다 그만두었다.

고화질을 자랑하는 스마트폰이지만 북한산의 점잖은 고요함을 온전히 담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이곳에 왔었더라도 무엇 하나 제대로 보았을 리 없었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 한 토막까지 모든 것이 안온했다. 도시의 머리 꼭대기에 숨어 은밀하게 빛나고 있는 북한산의 앙큼함이 사랑스러웠다. 그 밤, 자정이 되고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가을비에 젖어 미끄러웠다. 딛는 발에 힘을 주는데 문득 오래전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십 년이 지나도록 마나도의 숲은 여전히 함께였다. 보고 싶었다. 어둠에서 빛나던 나무, 겹도 없이 내려다보던 원숭이의 노란 눈 그리고 아직은 순수의 시간을 살던 그 시절의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변뜩이는 탐욕을 만나 문명의 논리에 잡아먹혀 버린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지쳐있었다. 나무, 바위 그리고 바람. 안온했던 순간들은 잔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고, ‘그러했던가’ 자조 섞인 혼잣말이 튀어나올 때 잠시 머릿속을 스쳐 갈 뿐이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덜어내고 나면 다음 하루의 무게가 기다리고 있었다. 타국의

도시는 변화의 속도전에서 살아남기에 친절한 곳이 아니었다. 사춘기 소녀가 만난 자카르타의 촌스러움은 편안함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더딤은 걸림돌이었다. 매년 성탄절 연휴 서울을 방문할 때면 지난겨울보다 몇 발자국 앞서 있는 변화를 마주했고, 두 도시의 좁혀지지 않는 틈을 확인하며 조급해졌다. 서울은 국제사회의 유행을 주도하지만, 자카르타는 그것을 쫓았다. 돌아오는 비행기에 앉아 혼자만 도태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멀치려 안간힘을 쓸수록 더욱 깊게 매몰되었다. 적도의 열기로 시간에 무감각해지는 동안 봄과 가을은 연이어 찾아왔고 그때마다 결혼과 출산 등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소식들이 날아왔다. 남들과 다른 삶의 속도에 관하여 색이 모호한 질문도 함께 따라왔다. 오래전 정해진 세상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몸속 어딘가에 들려붙어 장기를 깊이 먹는 세균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았다.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수록 이유 없는 부채 의식에 시달렸다. 병명조차 낯선 어지럼증을 진단받았고, 불면의 밤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웅크려 시들어가고 있던 어느 하루, 이 대로도 괜찮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열대 폭우의 시작을 알리는 갑작스러운 천둥의 섬광같이. 어쩌면 줄곧 말을 걸어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 빠져 자세히 들으려 하지 않은 쪽은 나였다.

“어머, 키가 더 커진 것 아냐?” “그러게. 이만큼 자랐네!”

코로나 시국으로 멈췄던 세상이 다시 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가지 못한

자카르타 외곽 지역을 2년여 만에 지나가고 있었다. 내 앓은 키보다 작던 나무 덤불은 어느새 자라 자동차 높이를 훌쩍 넘어 거대한 울타리가 되어있었다. 햇볕에 닿아 색색으로 물든 가지들이 쪘기 풀처럼 엉켜 서로를 붙들어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

다. 근처에 함께 서 있는 나무들도 눈에 띄게 높아져 있었다. 전기에 감전된 듯 강렬한 전율이 손끝으로 저릿했다. 도시의 소리가 사라진 동안에도 모두 묵묵히 자라고 있었다. 돌이켜 보니 나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우기와 건기를 오가는 벤더스러움을 견디면서도 날이 좋지 않으니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겠다며 게으름을 부려본 적도 없었다.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이며 자리를 지켰다. 혹여 그랬더라도 들릴 만큼의 소란은 아니었다. 나무에게 소리가 있다면 바람을 닮았을 터였다. 밀려오고 끌려가기를 반복하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존재하고 있는 울림이었다. 그리 올곧음만 아는 생이기에 제 앞을 지나는 인간의 분심과 절망을 달래주는 온유한 위로였다. 대지 아래로 뻗어 있는 뿌리는 고요히 흙을 움켜쥐어 옹골차게 서 있었다. 폭우와 강풍에 휘어져도 꺾이지 않는 결기에 부끄러움을 깨달을수록 얼굴 가득 열기가 폭졌다. 유한의 시간을 머물다 가는 주제에 더 오랜 시간 인내하고 살아가는 나무 앞에서 어떻게든 탓할 거리를 찾으며 물색없이 굴고 있었다. 나무는 소란스럽지 않은 소리로 말을 걸어오며 스스로 깨달을 속죄의 기회를 주고 있었다.

마나도의 나무가 기억 속 유난한 조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득 이보다 더 오래전 만났던 소나무가 떠올랐다. 스스로의 삶을 의심하며 절망하는 고통을 아직 알지 못해 파랑새의 날갯짓처럼 포롱거리던 시절 만난 소나무였다. 야만이 번뜩이는 칼날을 휘두르던 1950년대 초엽, 어느 젊은 목사가 당시로는 드물게 여학생만을 위한 사립학교를 세웠다. 전란 통에 막사로 된 교실이 전부였던 교정에서 소녀들은 황폐한 흙을 파 나무를 심었다. 반세기가 지나 나의 교정이 된 그곳은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서 있는 소나무로 가득했다. 당신들의 뒤를 이어 앞으로 나아갈 삶을 위해 심어진 의지였다. “너 참 멋지다!” 달리기 솜씨가 썩 괜

짧았던 내게 머리가 하얗게 센 교장 선생님은 매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 주었고, 갑자기 내리는 여름 소나기를 맞으며 단짝 친구와 깔깔대고 정신없이 뛰어다닌 날도 있었다. 첫 교복을 입고 교정에 들어선 날부터 적도의 이국으로 떠나올 때까지 나무는 나의 모든 사람을 지켜봐 주었다. 다시 찾은 학교는 여전히 날렵한 나무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시절의 내가 하얀 블라우스와 남색 치마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 소녀로 서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나무가 부려준 우아한 마법이었다.

‘이모 사랑해! 빨리 와. 보고 싶어!’

관악산 정상에서 찍은 동영상 속 아이는 앞니 두 개가 빠진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보드라운 두 볼과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손가락. 보고만 있어도 입안 가득 풋자두의 새콤함이 번지는 사랑스러움. 잠긴 국경에 갇혀 두 번의 겨울을 보내고서야 만나 지난봄 함께 올랐던 곳이었다. 폴짝거리며 용맹하게 내달리는 발돋움과 뚫어진 볼에 포도알을 넣고 오물거리던 입매가 여태 눈앞에 생생했다. 지쳐 널브러진 제 부모와 달리 아이는 유난히 세차게 불던 봄바람을 맞서며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허리춤에 두 손을 가져다 대고 ‘야호!’ 소리를 지르자 도시 위로 날아갔다 되돌아오는 것이 솜사탕처럼 달큼했다. 햇살이 좋은 날이었다. 동영상 속 조카는 어린 수사자의 같기처럼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있었다. 옹골찬 모습이 나무와 닮아 있었다. 세상이 불확실성에 주저하는 동안 아이와 나무는 사람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겁내지도 게으름을 부리지도 않는 두 생이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다.

전란 속 생을 시작한 묘목, 짙은 어둠 속 빛나는 나무, 세상의 혼돈 속 안온한 덤불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며 수련거리는 바람. 모두가 같은 말을 해 오고 있었다. 괜찮다고. 더디게 가는 것도 삶



의 방식이라고. 속도를 정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지 타인의 시선과 판단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 말결을 얹는다. 가다 보면 언젠가 닿아 있을 테니 지금의 생에 너무 애태우지 말라고. 스치는 것이 무엇이든 휘둘리더라도 뽑혀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니. 조카의 달보드레한 목소리 위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덮쳐왔다. 극성맞은 비바람이었다. 커튼이 비에 젖기 전 테라스 문을 닫으려 일어나자 멀리 야자수 나무들이 보였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길쭉한 이파리 아래로 뻗어 있는 얇은 기둥들은 저를 잡아낼 것이 세상천지 어디에도 없다는 듯 미동 없이 호젓했다. 제 앞을 지나갈 어느 인간보다 더 오랫동안 저곳을 지키고 있을 터였다.

‘이모는 잔소리가 많아. 그래도 사랑해’ 거르지 않고 내지르는 아이의 말은 꾸밈이 없었다. 언젠가 저만의 나무를 만나 그 앞에 서 있을 사내가 된 조카의 미래가 기다려졌다. 조카와 다음 또 그 다음을 살아나갈 아이들이 언젠가 제 결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절망을 알았을 때 길잡이가 되어줄 푸른 빛을 만날 기회를 지켜주어야 했다. 이것이 세상의 많은 나무와 그 푸름이 이어져야 하는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나무가巴斯러지지 않을 기억으로 새겨진 이유였다. 지키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 당연해서 너무 쉽게 잊게 되는 것, 사랑이었다.



적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518 학생기자 리포트

미-중 패권전쟁 속 우리의 대처

글: 조은제 JIKS 11학년

현재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중 하나를 뽑자면,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을 빼놓을 수 없다. 미-중 갈등 중에선 대표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대만 또한 하나의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보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지를 알려면, 중국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시점부터 살펴봐야 한다. 중국이 원래부터 공산주의 국가였던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패권을 두고 서로 두 번에 걸쳐 크게 국공 내전 벌였다. 이 내전은 20세기 초에 벌어졌는데,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이 초기엔 우세한 듯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쪽으로 내전은 기울어졌다. 결국 국공 내전은 공산당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중국엔 공산당이 정부로 들어섰고,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현재 대만을 수립하였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의견과는 다르게 “하나의 중국”이 아닌 대만을 독립적인 국가로 보려는 것일까?

대만은 현재 민주주의 국가로, 중국의 공산주의의 정치체제와는 다르다. 더 나아가, 대만은 남중국해 주변에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요소들 중 하나인 대만의 반도체 시장이 세계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기술력과 중국과는 다른 정치체제의 국가인 면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대만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사상으로 대만이 하나의 독립국으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중국은 현재보다 더욱 더 거대한 국가가 될 것이고, 미국의 목에 직접적으로 칼을 겨눌 수 있는 위치까지 설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을 알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미국은 항상 자신들의 패권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수준까지 국가가 성장할 경우, 먼저 해당 국가를 견제하여 자신들의 패권을 지켜왔다. 이러한 견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본이 있다. 일본의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 일본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잘나가는 선진국 대열에 있었던 국가였다. 하지만 점점 일본의 심기가 불편해진 미국은, 일본에게 경제제재를 가했고, 결국 1985년 체결된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만큼 일본의 경제는 몰락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는 사뭇 다르다. 중국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했을 때, 미국 또한 자국에서 경제위기가 발발해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중국을 견제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중국은 그 사이 빠르게 성장하여 미국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위치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오랫동안 진행중이다. 양국에게 걸린 국의 가치가 큰 만큼, 양국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에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지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껴 있는 국가다. 위로는 중국, 남쪽으로 일본, 그리고 한국 본토에 미군 등, 강대국들이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의 힘”이라는 도서에서도 언급되듯, 강대국들을 주변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확실한 중국의 편 또는 미국의 편보다는, 중립의 위치에 서서, 우리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북한과 분단되어 있고, 현재 두 국가는 휴전국가인 것이지 종전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무역을 하며 살아가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현재 중국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현재 대한민국 우방국인 세계 1등국가 미국과도 군사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 제 337회 문화탐방기

도심 정원 속에 숨겨진 박물관 'Museum Di Tengah Kebun Kemang'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부원장 정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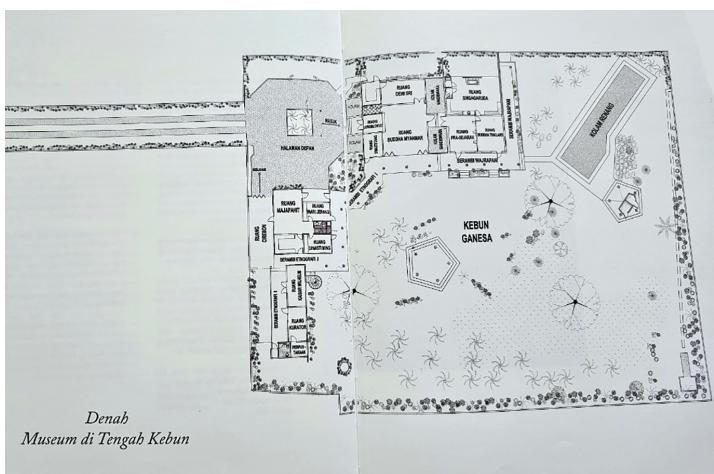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고대 로마의 정치인이자 군인, 성직자, 저술가였으며 서구권 황제의 시초가 된 인물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Gaius Julius Caesar)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물관에서 보게 될 줄이야. 별 기대 없이 방문했던 박물관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떠올랐다. 4.000여 점의 컬렉션 중에서 나는 100점의 스토리도 몰랐다. 그리하여 내 손에는 한 달 전에 사두었던 두꺼운 박물관 책이 다시 들리게 되었다.

첫 번째 궁금했던 점은 개인 소유 박물관이라고 하니 도대체 설립자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길래 2013년 자카르타 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되고 DKI 지방 정부로부터 두 번 상을 받을 만큼 멋진 박물관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유물을 보유했고 어떻게 유지했는지, 또한 인도네시아 재벌 가인지도 알고 싶었다. 박물관 설립자는 중부 자바 출신의 샤리알 잘릴 (Sjahrial Djalil, 1940–2019 / 79세 별세)씨이며 30대부터 취미로 유물 수집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Universitas Indonesia (UI) 졸업하지 못한 채 1965년부터 6년 동안 광고 회사 Inter Vista에서 근무했다. 1971년 자신의 광고 회사 Ad Force Inc 회사를 설립했으며, 그의 주거래 회사는 Hero, Indomilk, Gucci, Lanvin, Hong Kong Tourist Association, Chase Manhattan Bank 등 이었다.

1975년도에 그는 멘뎅 (Menteng)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수집품이 늘어갈수록 집안에 놓아둘 자리가 부족하여 더 큰 부지의 공간을 찾아다녔다. 1976년 꼬망 (Kemang) 지역에 총면적 4.2헥타르의 부지를 매입한다. 그 당시 땅 소유주는 매입자를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던 터였다고 한다.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지 입구가 목이 긴 도자기처럼 생겼기 때문이었다. 박물관 방문 시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지나칠 뻔한 경험을 되돌아보면 땅주인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그리하여 숨겨진 박물관이란 별명이 어울린다.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업자를 불러 설계도면을 만들고, 건설 자재 물색을 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를 1978년까지 했다.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 자체들을 폐건물에서 찾았다. 벽돌 중에 가장 튼튼한 벽돌은 빨간색 벽돌이다. 찔리웅 (Ciliwung) 강 부근 폐건물에서 65,000개의 벽돌을 구했다.



Denah
Museum di Tengah Kebun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폐건물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VOC에서 사용했던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오래된 자띠 나무들을 수집하고, 부킷두리(Bukit Duri) 지역의 여자 교도소에서 사용되었던 100개의 경첩을 가져왔다. 인도네시아 독립 후 부킷두리 여자 교도소는 1968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했다. 인도네시아 여성 운동가들(Gerwani)과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의 인사들이었으며, 1984년 여성 교도소는 수용 인원 초과로 인해 해체되었다. 박물관 입구 큰 대문의 1m 길이의 경첩은 Solo 지역에서 특별 주문한 것이다.

1979년에서야 박물관 건물 공사가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박물관을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한다. 공사를 하다 보니 빨간 벽돌이 모자라서 3주 동안 공사가 멈추었고 1896년 지어진 기상관 측소 건물이 마침 허물고 있어서 빨간 벽돌을 가져다 사용했다고 한다. 1980년 10월 1일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입주를 했지만 더 커다란 문제가 남았다. 부지 총면적 42,000제곱미터에서 박물관 건물은 700제곱미터이고 나머지 3,200제곱미터로 전체 토지 면적의 85% 부지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걱정이었다고 쓰여 있었다. 박물관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고 한다. 박물관 뒤편 정원 이름은 이 박물관에서 가장 값비싼 동상의 이름을 따서 가네샤(Ganesha) 정원이라고 한다. 이 정원에는 136개의 꽃꽂이 시리즈가 있고 1,200그루 이상의 야자수, 56개의 코코넛 나무 등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눈에는 그저 다 같은

꽃으로 보였다. 가네샤 정원에는 다양한 크기의 돌이 109개가 있고 서부 자바에서 석화되어 화석이 된 나무가 51개 흘어져 있다고 한다. 문화 탐방을 진행하기 전, 사전답사로 내가 방문했을 때 가이드가 힘들었는지 가네샤 정원에서 우리에게 자유시간을 주며 각자 보라고 하였다. 나는 아직 어디에 51개의 화석이 있는지 찾지 못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눈과 카메라 화면으로 보이는 가네샤 정원의 색감은 환상적이었다.

문화 탐방 당일 오전 나는 당황했다. 이 박물관의 특징은 사전 예약을 해야만 방문 가능했고 박물관 가이드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작 시간 9시 반을 훨씬 지나 10시가 되어가는데도 가이드는 오지 않았고 박물관 문은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입구 안쪽 박물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30분가량을 박물관 역사와 자카르타 수도 이름의 변천사, 박물관 입구에서 60m 걸어오면 만나게 되는 드바라팔라,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식민지 시



대 등에 대해 관하여 설명을 했다. 설명을 하던 와중에도 걱정이 밀려왔다. 혹시나 가이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했던 나의 예감은 적중했다. 다행히도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박물관 운영자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가이드가 오는 중이니 먼저



들어와 살펴보라고 하였다. 다행히도 나는 책 안의 300여 점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터라 직접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문을 지나 마치 신부를 위한 길처럼 아름다운 60미터의 긴 길을 따라오면 박물관 입구 앞 중앙에서 처음에 만나게 되는 드바라팔라(Dvara-pala)가 있다. 드바라팔라는 힌두교, 불교, 왕궁 등 종교를 가리지 않고 사원의 문이나 출입구를 지키는 수호자이다. 박물관 내부는 17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방마다 전시된 수집품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 있다.

60~70여개 나라의 컬렉션이 있다고 하는데, 박물관에서 개인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준다면 나는 분명 세어 보았을 것이다.

박물관 입구 문 옆 양쪽에는 큼직한 나무로 만든 벽걸이 와양 판넬이 있다. 힌두교에서 하늘의 왕인 날씨의 신이자 천둥을 다스리는 바따라 인드라(Batara Indra)와 바람의 신으로 불리는 바따라 바유(Batara Bayu)가 있다. 바따라 인드라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동일시된다. 인도네시아 와양(Wayang) 스토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존하는 기록상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의 신화가 여러 나라로 퍼지면서 신들의 이름이 변화한 것이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이 떠오른다.

인도 힌두교의 첫 번째 대서사시 라마야나와 두 번째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마하바라타의 주인공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박물관 가이드는 대학에서 인도네시아의 역사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마하바라타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했는데 본인도 끝까지 못 읽었다고 해서 웃었다. 그만큼 광범위한 이야기라는 뜻이다. 마하바라타 이야기를 알고 나면 재미있는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대서사시 중간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전에 문화 탐방을 진행했던 F.Widayanto 도자기 갤러리의 조각상 스마르(Semar)와 두루빠디 여신(Dewi Dru-padi)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재밌는 부분도 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19세기에 만들어진, 자신들이 신의 후예라고 믿는 자바 지역의 로로 블로뇨(Loro Blonyo) 목각 상이 방문객을 반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아는지 사전 답사시 동행했던 친구가 내게 설명을 해줬다. 한국의 원앙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한쌍의 자바 신랑 신부 목각상은 ‘둘이 함께’라는 의미이며 중부 자바와 동부 자바 사람들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쌀의 여신이자 다산의 여신이 데위 스리(Dewi Sri)와 남편인 라덴 사도노(Raden Sadono)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다. 부부 침실을 장식하거나 결혼식장에서도 사용한다고 한다. 로로 블로뇨 목각상은 행복, 번영, 충성 및 안전의 상징으로 행운을 가져다 주고 가정생활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4천여 점의 수집품 중에 어떤 것을 문화 탐방기에 담아야 할지 고민이다. 알리고 싶은 컬렉션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박물관 관리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수집품의 위치를 바꿔주기도 하고, 정원으로 옮겨 두기도 한다고 했다.



17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2세 (Ferdinand II) 황제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는 로마 제국 황제이자 오스트리아 대공, 보헤미아의 왕,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왕이었다. 재위 기간 30년 동안 많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던 왕이지만 후세에 암군이라 불리며 평가는 좋지 않다. 그의 능력이 출중했기보다는 그와 결탁한 가톨릭 동맹에 훌륭한 인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는 가톨릭 교회 재산을 복구 시킨다는 명령을 내리며 개신교를 가혹하게 탄압했다. 스웨덴 왕 구스타프 아돌프의 침입으로 그의 기도는 좌절되고 전쟁 중에 사망했다. 초상화 속의 그의 얼굴이 인자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19세기, 이탈리아의 니케 (Nike) 동상은 그리스 신화 여신으로 정복과 승리의 여신이다. 로마 신화의 빅토리아에 해당한다. 승리의 여신이라는 믿음 때문에 고대 그리스 선박에 자주 그려졌다.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용품 회사 나이키 (Nike)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회사 이름을 따왔다. 나이키 사의 로고도 니케 여신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육군 미사일에도 승리의 여신 이름을 따서 나이키 미사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박물관 소장 수집품 중 두 번째로 값비싼 수집품인 9세기 중부 자바의 금강수 보살상 (Bodhisatwa Wa-

jrapani)이다. 높이 121cm, 너비는 105cm이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박물관 설립자 샤리알 잘릴께서 오스트리아에 소지하고 있던 2개의 아파트를 팔아서 구입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로 표기된 불상 명을 오랜 시간 인터넷 검색하여 한국에서 불리는 이름이 ‘금강수 보살’이라는 것을 알았다. 손에 금강저를 지니고 있는 불교의 수호신 또는 성불하고자 수행하는 사람, 금강 같은 신심과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수행한다는 뜻이다.

롬복 섬 (Pulau Lombok) 옆에 있는 숨바와 섬 (Pulau Sumbawa)은 룸복 섬 크기의 3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마자파힛 (Majapahit) 왕국의 종속국이었다. 숨바와의 천연자원 때문에 자바, 발리, 마카사르, 네덜란드, 일본 등 외부 세력의 침략을 자주 받았다. 이 때문인지 19세기 숨바와의 토



우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수수께끼 수집품이다. 이 토우는 숨바와의 무덤에서 발굴된 부장품으로 숨바와의 건조한 기후 조건이 토우가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 토우의 자세와 얼굴을 보면 이집트 동상의 느낌이 나고 토우가 입고

있는 웃은 이집트에서 미라를 감쌌던 면과 같은 종류의 면이다. 지금까지 이 토우의 기원이나 숨바와의 인류학적 역사에 대한 학제적 조사는 없었다고 한다. 스토리를 알기 전까지는 평범한 흙으로 만든 인형 같았는데 알고 나니 달리 보였다. 그래서 박물관 컬렉션은 역사를 알고 봐야 재미있는 것이다.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기원전 2억 3천

만 년 된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와 백악기 사이에 끼어 있던 쥐라기 시대(Jurassic Period)의 암모나이트가 내 앞에 있다니, 다시 한번 박물관의 수집품에 환성이 나왔다. 달팽이 모양의 나선형 껍질을 갖고 있었으나 형태는 오징어류에 가까웠다고 하는 암모나이트 화석은 높이 49cm, 너비 47cm로 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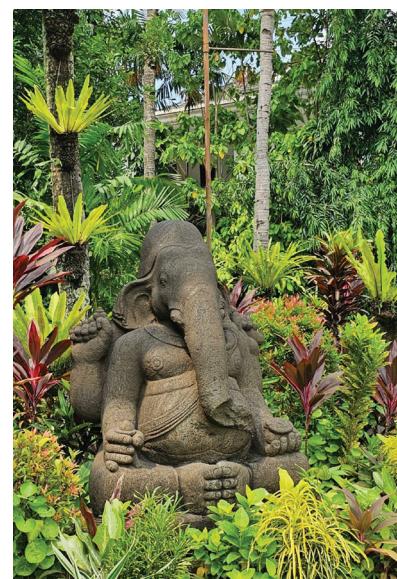
않은 크기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차하는 공간의 구석에 있었다는 점이다. 사전 답사하는 당일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한 나는 이곳저곳 외부를 돌아다니다가 이 화석을 발견했다. 이렇게 오래된 암모나이트 화석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가네샤(Ganesha)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인도 신화의 3대 신, 창조의 신 브라흐마(Brahma), 보전 유지와 평화의 신 비슈누(Visnu), 파괴의 신 시바(Shiva)은 기억해 두도록 하자. 코끼리 머리를 하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가네샤는 파괴의 신 시바와 시바의 아내인 빠라와띠(Parwati 또는 Parvati)의 아들이다. 사실 가네샤가 처음부터 코끼리 머리인 것은 아니었다. 가네샤의 어머니인 빠라와띠가 목욕을 하던 중 누군가 자신에게 위험을 가할까



걱정되어 신체 일부를 떼어 아들을 창조했는데 이 아들이 바로 가네샤다. 당시 시바는 출타 중이었고 빠라와띠는 가네샤에게 자신이 목욕하는 동안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아버지가 시바인지 몰랐던 가네샤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시바 신의 출입조차 막았다. 아내가 만든 아이인 줄 몰랐던 시바는 화가 나서 가네샤의 목을 잘라버렸다. 목을 마치고 나온 빠라와띠는 죽어 있는 아들을 보고 화가 나서 그녀의 다른 아바타인 두르가(Durga)로 변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였고 그로 인해 땅이 흔들렸다. 그때 충격으로 스리랑카가 인도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설도 있다. 아내의 화를 누그러트려야 했던 시바는 밖으로 나와 제일 처음 만난 죽어 있는 코끼리의 목을 베어 가네샤의 몸에 붙이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가네샤는 갖가지 장애를 겪어내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며 학문의 성취를 이루어 주는 지혜와 행운의 신으로 섬겨진다. 그 외 가네샤에 대해 여러 가지 신화가 존재하고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전해진다.

Museum Di Tengah Kebun Kemang에서 가장 비싼 수집품은 9세기, 중부 자바의 가네샤 조각상이다. 정원 한가운데 멋진 모습의 가네샤는 높이 173cm, 너비 130cm이다. 나보다 키가 크다. 정원 지킴이인 이 가네샤는 자바 고전 시대의 가네샤 조각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각자들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미완성 조각상이다. 이 가네샤를 수집하고 싶었던 설립자 샤리알 잘릴씨는 가네샤가 있던 지역에 학교를 설립해주고 교환식으로 가지고 왔다고 한다. 책에는 나오지 않는 가이드의 말이었고,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확실한 것은



금강수 보살상 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위에 소개한 내용 외에 고대 이집트 여신 이시스(Isis), 2005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크리스(Keris), 인도네시아 국장이며 비슈누신의 교통수단, 인도네시아 에어라인 로고인 가루다(Garuda), 마하칼라(Mahakala), 아가스티야(Agastya), 시바 사원 오른쪽 문지기이며 시바신의 운송수단인 난디스와라(Nandiswara),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의 또라자 족의 마을 입구를 지키는 장승, 독일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빅토르 알베르트(Friedrich Wilhelm Victor Albert) 2세의 초상화, 비슈누의 아바타로 간주되는 크리슈나(Krishna), 라마야나(라마 왕자의 모험기)에서 라마 왕자를 도와 시타를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원숭이 군대의 대장 하누만(Hanuman), 중국의 청나라 자기, 한나라 자기, 명나라 자기, 그리고 우리의 조선시대 자기 7점, 은으로 만든 식기들, 인도의 공주들이 가지고 놀았던 상아로 만든 과일 미니어처 등등 정말로 많다.

박물관 설립자 샤리알 잘릴씨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나, 숨어있는 미지의 사내이고 싶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후세에 값으로 매길 수 없이 귀한 수집품을 남긴 그를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짚은 시절의 온유하고 환한 모습의 박물관 안 액자에 그의 사진을 싣고 싶었는데 인터넷 검색에 그 사진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남아 있는 사진은 그가 파킨슨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방문객을 맞이했던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의 모습의 사진과 화가 난 듯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사진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평생을 성글로 살다 떠났고 지금은 그의 동생이 박물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는 불법 및 위조품을 받고 싶지 않아서 증빙된 런던의 경매소 Kristi Auction Center 나 직접 방문해서 구입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컬렉션이 잘 보존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역사적 자료로 사용되길 원했다.



샤리알 잘릴씨의 묘는 뒤틀 넓은 정원 한편에 예쁘게 이슬람 글씨가 새겨진 비석과 함께 모셔져 있었다. 나는 두 손 모아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 덕분에 세계 일주를 하듯이 여러 나라의 역사와 전설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전 그가 바랬던 후손을 위해 그의 소장품을 남긴다는 큰 뜻을 존경한다. 문화 탐방에 참여하신 헤리티지 3기, 7기 여러분과 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준 모든 참가자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한인회 한인문화연구원이 계속 교민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래 본다.

[감수] 사공 경

[참조]

Museum Di Tengah Kebun Kemang 책자

<https://www.britannica.com/topic/Ganesha>

<https://indonesia-az.com/wisata-jakarta-cerita-museum-di-tengah-kebun/>

<https://www.konde.co/2016/05/jejakan-jepara-perempuan-pasar-mester.html/>

<https://www.riyadariisman.com/2016/06/museum-di-tengah-kebun-masa-lalu-di.html>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1)

1. 인도네시아에서 위조 상품 유통 상황

인도네시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지식재산권보호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과 규정의 이행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0년 지식재산권 보호지수에 따르면, 조사대상 53 개국 중 인도네시아는 46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적상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쇼핑 이것은 확실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측면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또한 불법복제가 만연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비디오게임 같은 상품은 진짜 상품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짜 상품가격의 10% 이하의 가격으로 영화나 음악 앨범을 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과 규정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표현일 것이다. Oke Finance의 뉴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부 지식재산권청 지식재산권 수사 및 분쟁해결국 (Direktorat Penyidikan dan Penyelesaian Sengketa)의 발표에 따르면, 상품가짜 및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염려스러운 수준이며, 인도네시아 위조 상품 배척회(Masyarakat Indonesia Anti Pemalsuan/MIAP)와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대학 (Fakultas Ekonomi Universitas Indonesia/FE UI)이 공동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위조 상품 7 가지는 다음과 같다.

- 가. 프린터잉크 (49.4 %);
- 나. 의류 (38.90 %);

- 다. 가죽제품 (37.20 %)
- 라. 컴퓨터 및 랩톱용 소프트웨어 (33.50 %);
- 마. 화장품 (12.60%)
- 바. 음식 및 음료수 (8.50%)
- 사. 의약품 (3.80 %).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국가경제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손실은 Rp.65.1조(식음료 상품 Rp.1조 339억 의류 및 가죽 상품 Rp.41조 581억, 의약품 및 화장품 Rp. 6.5조, 소프트웨어 및 잉크 상품 Rp.3.6조)로 추산되며, 최고 Rp. Rp.4,240 억의 원본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간접세 수입 손실을 초래 하고 있다고 한다. MIAP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인도네시아 국가의 경제적 손실은 Rp. 43.2조, 1.5 배나 증가했다고 했다. MIAP의 Widjaretta Buenastuti 회장에 따르면 Rp.4,240 억은 임금 및 급여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와 같은 직접세 계산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0년 1월 1일 CNN Indonesia의 뉴스는, 법무부 지식재산권청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고발은 47건, 즉, 상표권 침해 고발 34건, 저작권 침해 고발 7건, 특허 침해 고발 2건, 산업디자인 침해 고발 4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47건의 고발 중 43건을 조사했으며 26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도에는 고발 36 건 중 26 건을 조사했으며 24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를 취했다. 2019년도에 지식 재산권청은 IndoXXI 나 LayarKac21 같은 저작권을 위반한 많은 웹사이트 중 199개의 웹사이트 강제 폐쇄를 요청했다. 2018년도에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390개의 웹사이트 강제 폐쇄를 요청했다. 위의 수치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 소비가 상당히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약 2억 7천 5백만 명이 살고 있는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위조 상품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큰 시장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의 세계적인 공급처보다는 위조 상품의 소비지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인도네시아에서 위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가. 위조 상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문제 의식이 약하다.
- 나. 위조 상품 생산자 혹은 매도자만 처벌하며 위조 상품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제도적인 문제이다.
- 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위조 상품이나 해외에서 생산된 위조품이나 매입이 매우 용이한 환경이다.
- 라. 상품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보다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다.
- 마. 위조 상품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의 위조 상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실한 수익을 올리려는 상인의 욕망과
- 바. 진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3. 위조 상품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Hak Kekayaan Intelektual/HKI)에 대한 보호는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위조 또는 불법 복제의 형태로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가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당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위조 상품 범죄는 일반범죄가 아닌 친고죄(Delik Aduan)이여서 상표권 이해관계 당사자의 형사고발이 있어야 국가에서 수사를 할 있다. 국민에게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홍보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전문 공무원도 충분치 않은 상황을 금방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며 경찰 조직은 수도에 경찰본부(Markas Besar Polisi Republik Indonesia(Mabes

Polri), 주단위에 지방경찰청(Polda), 시/군청 단위에 경찰서(Polres) 및 구/면/동 단위에 경찰지서(Polsek)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경찰지서나 경찰서에 고소하면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수사관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나 수사관이 있는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 혹은 법무부(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Kemenkumham) 산하 지식재산권청(Direktorat Jenderal Hak Kekayaan Intelektual/Ditjen HKI))에 고소를 해야 수사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지 설정이다.

4.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민사)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상품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의 관련 법규에 따라 i). 상표 등록 말소 청구 소송 및 ii).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상표 등록 말소 청구 소송

이해관계 당사자는 상표 및 지리적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 20 호 제 76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권등록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 등록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상표권 보유자

- 검사

- 소비자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재단법인

가. 상표등록 말소 소송 청구 사유

상표법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상표 등록 불가 이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 등록 불가 이유를 어기고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 등록 말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호에서 계속)

어휘력 높리는 실전 놀이 학습



지시가 아닌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글쓰기를 도와주고 싶어도 아이들의 흥미를 어떻게 끌어내어 줄 것인가가 가장 고민입니다. ‘흥미’라는 배경이 없다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짜증 폭발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 유발, 어떤 과목에서든 가장 난제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야 파고들고 그래야 가르치는 사람도 흥이 나는데 말입니다.

단어 설명하기



국제 학교 아이들 놀이 중에 ‘I Spy with my little Eyes’ 란 놀이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잘 아는 ‘스무고개’ 와 비슷합니다. 술래인 아이가 그 공간에서 보이는 것 중 하나를 속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은 술래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맞추는 놀이입니다. 스무고개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무언가도 가능하지만 이 게임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형태가 있니?”

“응”

“뚱뚱해? 날씬해?”

“날씬해.”

“날 수 있니?”

“날 수는 없지만 공중에 서 떠 있는 것도 있어”

“소리가 나니?”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안나는 것도 있어”

“움직이니?”

“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것에 따라 니가 움직여야 해”

“무슨 색이야?”

“어떤 때는 빨강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초록이기도 하고, 노랑이 있는 것도 있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 술래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답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계속 문장을 만들어 내고 그 것에 대해 비유적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날아가는 새도 되고, 태양, 구름, 지나가는 사람, 혹은 자동차 손잡이, 거울 등 어떤 것도 다같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어 이어 문장 만들기

아이들에게 지금 이 공간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 4가지와 사람 한 명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문장으로 이어 보도록 합니다.

‘방구’ ‘아빠’ ‘TV’ ‘슬리퍼’ ‘시계’

– 방구를 켰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TV를 보시던 아빠가 슬리퍼를 던졌는데 시계가 맞았다.

‘똥’ ‘강아지’ ‘동생’ ‘볼펜’ ‘걸레’

– 강아지가 똥을 싸서 걸레로 닦았는데 동생이 와서 볼펜으로 그 자리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사탕’ ‘강아지’ ‘엄마’ ‘걸레’

– 사탕 훔쳐먹은 강아지에게 엄마가 걸레를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되게 엉뚱한 답변들이 나옵니다. 예상치도 못한 단어들로 당황하고 말이 되든 안되든 연결만 시켜옵니다. 말이 되든 안되든 상관 없습니다.

어색하고 말이 안되어도 “그게 뭐야” 절대 편안을 해서는 안됩니다. 같이 웃어주시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칭찬하며 같이 엉뚱한 문장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으로 유도하세요.

처음에는 그저 단어를 이어가다가 점점 문장답게 변하고 점점 더 길어집니다.



문장 이어가기

저녁 준비를 할 때 아이를 부엌에 앉혀두고 요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김밥을 만들고 아이는 그 답을 적으면 됩니다.

“엄마는 지금 김밥을 싸는데... 제일 먼저 뭘 하면 좋을까?”

“음... 당근을 썰어?”

“그래 맞아. 어떻게 써는지 잘 모고 그걸 노트에 적어봐”

‘엄마가 당근을 썰어요’

“그 다음, 엄마는 계란을 풀어서 후라이팬에 지단을 부칠거야”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계란을 익힙니다’

김을 펴고 밥을 얇게 깔고, 계란, 오이, 당근, 단무지를 나란히 놓고, 김과 밥을 터지지 않게 동그랗게 마는 동작까지 한 줄 한 줄 써보게 합니다. 간을 보게 해서 밥이 짠지, 계란이 고소한지, 김밥의 맛은 어떤지 먹어보고 질문하고 그 느낌을 적게 합니다.

음식을 하는 동안 아이에게 혼자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아도 되고, 짧은 문장 쓰기의 연습도 됩니다. 처음에는 단문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중간에 한 단어씩 넣게 됩니다.

‘당근을 썹니다.’ – ‘당근을 길게 썹니다.’ – ‘당근을 가늘고 길게 썹니다.’

그러다 보면 형용사, 부사, 접속사도 쓰게 됩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적당히 두릅니다. 그리고 곱게 풀어놓은 계란을 팬에 넣어 얇게 익힙니다.’

‘엄마가 김밥을 만듭니다’ – 엄마가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김밥을 만듭니다. –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당근과 오이와 참치를 넣어 김밥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차츰 한 단어, 한 단락씩 늘어가다 보면 근사라고 긴 문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주요기관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한국대사관	2967 2555			심스골프	570 3063
영사관	2967 2580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주발리분관	361)445 5037	Hansol Kids	765 6588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Brain School	7179 4787	골프투어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Patra Kuningan)	8378 3783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사랑	835 1540	● 골프샵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성모	7884 2467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하나	844 5283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레네세계골프	739 83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끌라빠가딩)	471 8047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땅그랑)	558 7227	EFC Golf	725 005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 한인단체				MFS골프	725 0057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 골프장		Play Golf	722 9587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BOGOR RAYA	0251)827 1888	월드	552 7434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CENGKARENG	5591 1111	Bridgestone Golf	7279 8123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CILANGKAP	8459 5687	Love Green Halim	8778 2771~2
한인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CIKAMPEK	0264)317 007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DAMAI INDAH [BSD]	537 0290		
● 한인잡지		EMERALDA	875 9019	● 은행	
한인뉴스	521 2515	GADING RAYA	546 7668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교민세계	739 9025	GUNUNG GEULIS	0251)825 7500	수출입은행	525 7261
여명	9955 5859	HALIM 1	800 5762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HALIM 2	809 0729	우리소다은행 본점	2995 1915
● 교육기관		IMPERIAL	546 0120	신한은행	2975 1500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JABABEKA	893 6148		
꿈나무학교	5579 4407	JAGORAWI	875 3810	● 가구	
간디국제학교	690 9902	KAPUK	588 2388	죠지언 퍼니쳐	2276 6887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KARAWANG	0267)405 888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KEDATON	5930 000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끌라빠가딩)	460 8888	KEMAYORAN	654 1156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KRAKATAU	0254)372 030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LIDO	0251)822 1008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MATOA	787 0864	● 건강식품/건강원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MODERN	552 9228	경동건강원	7028 4262
일본학교 (JJS)	745 4130	PALM HILL	8795 4307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PANGKALAN JATI	751 3326	한국건강원	5579 6411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PERMATA SENTUL	8795 1787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PONDOK CABE	740 5385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SPH (땅그랑)	546 0234	PONDOK INDAH	769 4906		
(찌까랑)	897 2786	RAINBOW HILL	0251)827 2111	● 국제전화 서비스	
RICS	7590 3342	RANCAMAYA	0251)824 2282	글로벌링	725 1606
해리티지인터넷셔널 (HIS)	0812 971 2306	RAWAMANGUN	475 4732	넥스텔링크	525 3187
LYCEE Int. FRANCAIS	750 3062	ROVER SIDE	867 1533	데이콤	720 7551
JIPS	3004 2885	ROYAL JAKARTA	8088 4488	킹폰	574 0888
JIMS	744 4860	SAWANGAN BARU	740 2194	현대 텔레콤	5579 1226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SEDANA	0267)644 730		
ACG 국제학교	780 5636	SENTUL HIGHLAND	8796 0266	● 건설 / 설비 전기	
ICSCE	780 7313	TAKARA	599 1227	DASOM Indonesia	2940 3042/5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Sinarmas World Academy(SWA)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Easy Golf	801 2048		

변호사 이승



인니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세무 소송 전문 대한민국 법원 비거주자 판정 다수 승소 경험

변호사 약력

1989 서울대 입학
1997 사법시험 합격 (39회)
2000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2023 현재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파트너)

법무법인 새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4층 (서초동, 케이원빌딩)
T. (한국)+82-10-3051-3670
(인니)+62-857-7577-1114
E. sabub89@hotmail.com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른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뿐독인디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퐁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뿐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고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쯔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뿐돌빼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 / 법인 / 인허가 / 비자 / 채용 / 부동산 / 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DOOWANG과 함께 가면
면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조Dam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 식당

하나	0254-393 2146	산해진미	5577 8182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서울일식	546 0840
가야성	725 7373	아리수	0254-781 0059
가효(SCBD 점)	5289 7044	알리사	0254-60 1430
강남	0812 2323 5119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강남스타일	2952 8443	용대리 (SCBD)	021-5150 7734
홍대포차	726 4999	(Kelapa Gading MOI)	0812 5723 7627 (WA) 021-2245 0964
김삿갓	722 2230	0811 887 5705 (WA)	
대가	8459 2871	우리들	552 4047
대감집	723 3315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대화	720 6091	종가레스토랑	551 3273
락	5793 9211	청기와	0858 1377 3388
마포	7279 2479	수하루	5577 8585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태능갈비	7055 0888
명가면옥	0254-849 3571	테라스 가든	8493 9321
면의전설	521 0230	한미당	5577 6770
명가면옥	2751 080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미가	0818 85 8026	산정 찌까랑	2909 3000
미스터 박	5140 1142	산정 까북	3005 1650
버까시 서울	8895 7604	유가네	2221 3392
베이징	0254-837 024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보신명가	789 022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 신문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소래포구	8990 5051	한인포스트	4586 9199
청기와	726 1924	JAKARTA POST	530 0476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 안경원	
한강가든	0813 1988 5751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 여행사	
깜닭	4584 5837	나래여행	5296 0749
다미	4585 0040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대장금	0816 885 956	굿데이투어	4586 0598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그린관광	798 3322
명가면옥	8990 4552	Red Cap	5797 3397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Rodem Tour	4587 8833
미추홀	6583 1472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산정(찌까랑) (땅그랑)	2909 3454 547 3172	부미관광	7279 0011
서울	4585 4454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설악추어탕	2937 5435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감미옥	5579 4612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강나루	5576 8222	스카이투어	391 1381
강촌	5579 3681	153 TOUR	5720 153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코리아트래블	230 3116
대가야	547 5511	코인관광	720 7230
명가면옥	552 2745	하나관광	520 2450
산들	5579 5821	호산여행사	691 3602
상하이	5573 5550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너어통역/번역		● 컨설팅		● 학원/교육업	
Mrs. Lee	021 743 2687	오룸컨설팅	4585 4910/1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CITRA	781 777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 의료기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종로학원	7883 5202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두왕컨설팅	520 7153	토마토미술	723 3699
● 인터넷		우리컨설팅	7918 4239		0817 9876 950
HANASTAR INTERNET	2270 8282	컨설팅 21	799 618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S-Net	7080 7886	한생컨설팅	5290 0670	해동검도	522 7204
● 인테리어		KMAQA (ISO인증원)	573 1576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AEGIS BLIND	2943 38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조수화중국어(방문수업)	0877 7551 5156
H2 Stuff	4586 7860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 항공	
Living A&L	7278 0704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터미널3)	8082 2198/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OSSel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0804 1807 807
INNOMATE	7919 2006	리콤컴퓨터	725 1606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컴퓨터 원	5576 5228	(공항지점)	8082 2291~2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지텍컴퓨터	5696 7001	싱가폴 항공	570 4411
● 운송 해운 이삿짐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소명통관	4585 9283	한비텔	8379 1144	● 호텔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그랜드멜리아	526 8080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만다린	314 1407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 택시		물리아	574 7777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SILVER BIRD	798 1234	샹그릴라	570 7440
페나스콜 로지스틱스	2902 3838	BLUE BIRD	794 1234	싸이드자야	570 4444
CARGO PLAZA	831 7779			하야트	390 1234
DHL	7919 6677	● 하숙		크라운플라자	526 8833
FIRSTINDO EXPRESS	5296 0024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슬탄	573 8011
PANTOS LOGISTICS	8998 2855	가딩 품스테이	9661 5877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HAES IDOLA CARGO	8591 8488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자바 팔레스	2928 1111
HANINDO EXPRESS	252 5123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 환전	
KORNET LOGISTICS	8379 3455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굿-머니	5793 9990
QCN	7834 1190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Wings Global	4585 8053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 3637	끌라빠가징	453 1166
ZIMMOAH	2937 5670		KAKAOTALK ID : theblueid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WIKASA	8379 1935	등지 하숙	3608 9316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 자동차 정비소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뚜나스신암	797 6105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 증권/보험		모나리자	8990 9570	환전	712 8556
삼성화재	021 8062 200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 반동 (지역번호 022)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쉼터 하숙	726 8775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0813 2233 0119
키움증권	5010 580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KDB 대우증권	515 1140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한국인교회	201 4052
KB손해보험	3199 0247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화생명	727 88150	한발	830 9990	● 식당	
		한울타리	739 5841	뉴캐슬식당	201 5007~8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명가레스토랑	200 7363
		현대 하숙	0818 795 787	코리안하우스	203 162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한국관	204 3069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kan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 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 종교 단체

<기독교>

교민교회	5576 7508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례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규)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승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김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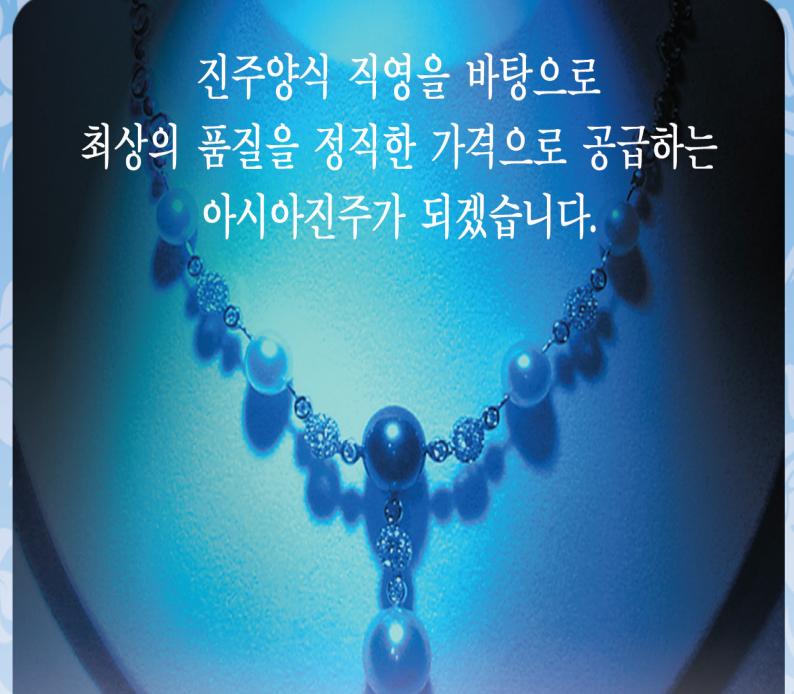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고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혜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종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김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수출 · 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동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김 동 영	0811-2188-855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4-5469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박 병 건	0812-2685-1121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BE
THE FIRST
MOVER**



KMK GROUP